





여론매체

수서비리 은폐 조작 청년학생 분노한다

열린글터

교육받을 권리 날치기 박탈  
제적생들의 복교투쟁은 생존권 투쟁

1989년 12월 23일 새벽 2시경 동학을 불법난입한 경찰들에 의해 강제연행 되어 집회 및 시위행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후 1심에서 실형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990년 6월 28일 출소한 무력학과 87학년 학우입니다.

학업을 계속 희망하였던 저는 출소 며칠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것이라곤 식민지 조국의 청년학생으로서 자주화 된 학원과 자주화 민중과 통일화된 조국건설을 위해 학생회

활동을 해 온 것 뿐입니다. 두 차례의 수감생활 속에서 노력 우정권이 한 맺힌 저에게 사회와 격리되어 구속되어 있는 상태 입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은 가차없이 학원에서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동학에서는 박탈당한 것입니다. 단지 학적을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1988년 부총학생회장장이었던 이호영(국문 85 3월 21일 만기출소) 전배님도 저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또한 우리주위에는 시국관련 뿐만 아니라 피지 못할 사정-가정형편상 등록금이 없는 경우, 병사 관계 등-에 의해서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 당한 동학을 떠난 학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적된 학우들은 학생이라는 자기존재기반을 박탈 당한 채 함께 강의를 받던 학우들과도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생활 전반에 있어서도 중상을 겪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일해왔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학사행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행한 한번의 실수로 너무나 값 비싼 댓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학교당국은 매년 같은 말만

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계획성을 반드시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동학은 종립학교로서 석기부처님의 자애를 생명처럼 여긴다면 학교당국은 제적된 학우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다시금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동학의 학우들은 노동자 농민형제들의 생존권투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기반 자체가 흔들릴 때는 백골단 최후탄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 나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적생들의 복교투쟁은 바로 자신의 존재기반을 갖기 위한 생존권투쟁인 것입니다. 이세웅(경상대 무역87) 제23대 자주적 총학생회 인권사설부

교육재정, 바르게 구성돼야  
국가보조금-재단전입금-등록금으로

개강과 함께 많은 학우들의 관심이 등록금문제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률이 25%라고 알려지자 학우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등록금도 오를 수 밖에 없다”라든가 “25%는 너무 심하니까 대충 10%로 깎자”는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등록금 문제의 원인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니까 대정부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등록금도 오른다는 전제 근거없는 학교측 변명에도 동조하는 태도나 등록금에 수에만 관심을 두고 대총장짜는 태도 역시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등록금문제 해결을 성급하게 사회민주화투쟁에 연결하는 태도도 등록금투쟁이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교육재정, 즉 돈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므로 1차적으로 국가의 지원과 학생들의 등록금,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의 전입금으로 마련됩니다. 그런데, 학원에 투자되어야 할 국가보조금(교육세)은 무기사입비, 주한미군주둔비등으로 유용되고 있으며, 동학재단전입금이 전부한다는 사실은 91학년 신입생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등록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니 물가가 오르면 등록금도 오른다는 논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등록금 사용내역조차도 공개가 되지않으니 내가 낸 등록

금이 기관의 침실함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해마다 등록금의 문제는 제기되어 왔지만 학교측의 기만적 행동과 학우들의 통일단결이 부족한 이유로 등록금투쟁에서 승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돈 몇천짜짜, 환불받자는 차원이 아닌 등록금사용내역을 공개받고, 재단의 전입금 확보와 등록금채증과정에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어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예-결산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등록금사용내역공개, 책정과정의 학생참여는 동학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정미경 (문과대 영문과)

1990년 12월 23일 그리고 1991년 2월 28일 새벽, 이날은 내가 학교에서 잠을 자다가 중내로 난입한 경찰에 의해서 중내로로 연행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월 27일 당일 나는 친구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2년간 지냈던 대학생활과 앞으로 일들을 얘기했다.

밤 11시경 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아리랑에 다시왔다. 그런데 대 28일 중강당에서 할 공연준비를 하다 차가 끊겨 집에 못가게 됐으니, 하룻밤만 재워달라며 고등학생 5명이 찾아왔다. 어린학생들이 행사회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려 뛰어들

초대 사진

박용희 (사범대 지리교육과)



한 아이 (일제에 의해 동물원으로 학박되고 해방된지 몇십년이 지나서야 복귀한 장경호. 이 아이에게는 이 고궁이 단순히 아름다운 추억을 안겨준 장소가 기억되었지만 장차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난 뒤 과연 감성적인 느낌만으로 기억될까?)

김남명 (경상대 경제학과)

공권 미명하에 자행되는 학원침탈  
박탈당했던 신체의 자유는 어디서...

1990년 12월 23일 그리고 1991년 2월 28일 새벽, 이날은 내가 학교에서 잠을 자다가 중내로 난입한 경찰에 의해서 중내로로 연행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월 27일 당일 나는 친구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2년간 지냈던 대학생활과 앞으로 일들을 얘기했다.

밤 11시경 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아리랑에 다시왔다. 그런데 대 28일 중강당에서 할 공연준비를 하다 차가 끊겨 집에 못가게 됐으니, 하룻밤만 재워달라며 고등학생 5명이 찾아왔다. 어린학생들이 행사회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려 뛰어들

신규교수채용에 대해

88년 학원자주화의 불길이 타오른지도 4년째 접어들고 있다. 학교당국과 합의된 내용 모두가 완결된 형태로 나타나고있지는 않지만 기간 투쟁의 축적물들은 동학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자부심을 느끼지않을 수 없다. 그 중 하나는 91년 '신규 교수채용'이다. 타 학교에서는 교수채용에 있어 학생참여는 임무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며 어느정도 학생참여가 보장되는 학교는 우리학교를 제외하고는 서강대 정도이다. 이번 신규교수채용은 우리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학생참여가 실제

로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모 일간지에 “학생참여가 웬말”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의 기사는 논외로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으로도 교수임용시 학생의 평가는 비상사적인 행위로 통할 것이다. 과연 교수채용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과연 학생들의 비이성적인 행위인가?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교원은 정당성으로 확보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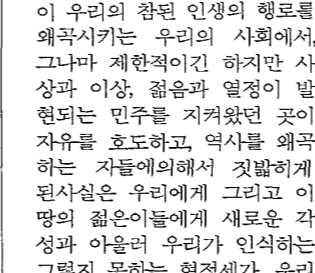
더욱이 이조 이래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해 왔던 유교적 전통에 따르면 군사부는 일체이다. 필자만 해도 ‘자신이 감히 부모 앞에서’, ‘어린네가 감히 남편 앞에서’ 등 이런 식의 권위주의적 분위기에 젖어있고, 그러기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때로는 충격을, 때로는 거부감과 갈등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도 우연히가 아니라 반드시 ‘-에 연하여 일어난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따를 때, 일어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인과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단지 자신이 길들여지고 받아

기 힘들었다. 그리고 부당행위에 대해 그곳에서 몇몇에게 큰 소리를 치며 대항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 부끄럽다. 대학이라는 한정된 장소, 정의와 민주가 죽어나가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예측과 추측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행로로 왜곡시키는 우리의 사회에서, 그나마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상과 이상, 젊음과 열정이 꽃피는 민주를 지켜왔던 몇몇 자유를 호도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 의해서 깃발하게 된 사실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각성과 아울러 우리 인식이 어떻게 못하는 현정세가,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가, 무자비한 파쇼의 광풍으로 불어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계기일 것이다. 나는 우리의 공민을, 예로부터 역사속에서도 민족의 진실을 면면히 이어온 대학사회를 근화발의 발광아래 깃발하게 세우는 안될 것이다.

이 지수 (불대 인철과 교수)

만나고 싶었습니다



성주현 (농대 임학과)

“원래 태생이 이래요. 계수 했나니 소리는 보통이구 심수 했나고까지 물어요”라든가 뜻 여 유있게 웃는 성주현(농대 임학과)은 신신한 91학번으로 지난 신입생오리엔테이션의 무대에서 참석자들의 웃음보를 터뜨리듯한 주인공이었다. 중견기의 약간 검은 피부에 금테 안경을 쓰고, 목소리는 어른스러워 91학번인 하기에 어색했다.

사상초대의 입시경쟁에서 합격하기 위해 소신만, 절수만으로 과신택을 했다며, “담임선생님이 불을 수 있다고 해서 썼어요. 건축학을 하고 싶었는데, ”라며 부절공으로 건축학을 할거라고 입학과 건축학을 상관없이 설명하기도 한다. 총학생회행사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신입생으로의 소감에서 “대학생활이 주장을 하는 한편을 느낄 수 있었어

신규교수채용에 대해

88년 학원자주화의 불길이 타오른지도 4년째 접어들고 있다. 학교당국과 합의된 내용 모두가 완결된 형태로 나타나고있지는 않지만 기간 투쟁의 축적물들은 동학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자부심을 느끼지않을 수 없다. 그 중 하나는 91년 '신규 교수채용'이다. 타 학교에서는 교수채용에 있어 학생참여는 임무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며 어느정도 학생참여가 보장되는 학교는 우리학교를 제외하고는 서강대 정도이다. 이번 신규교수채용은 우리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학생참여가 실제

로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모 일간지에 “학생참여가 웬말”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의 기사는 논외로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으로도 교수임용시 학생의 평가는 비상사적인 행위로 통할 것이다. 과연 교수채용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과연 학생들의 비이성적인 행위인가?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학생참여로 '우리' 교수님 모셔야

대로 짧은 정치,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한다는 대학사회의 모든 분야의 요소에서 살아 터지고있다. 젊은 세대는 이 나라의 장래를 어떻게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 할 의무가 있는 젊은 대학인들이 먼저 학원내에서부터 부패된 사회를 하나하나 수습해 나갈 때 새 세상은 돌아올 것이다.

박진하 (사범대 역교과)

70년 선배-동료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구요. 특히, 아리랑의 '우리들의 죽음'이란 공연이 인상적이었어요”라든가 대학의 여러면을 신중히 생각하고 선별해 받아들였다는 다 부지게 말한다.

고등학교 때보다 많아지는 시간에 필하고 싶냐고 하자 “고등학교때도 YMCA 학생회를 맡, 농구부등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많은 세월활동을 했어요. 입학해서 산을 위주로 자유로이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또, 많은 이들과 사귀며 저 자신을 발전시킬 겁니다”라고 대답하는 성준은 모든 음악을 좋아하지만, 플루트 음악을 특히 좋아한다고 한다. 세상에서 부모님을 가장 존경한다면서 “두 번은 많이 배우시지도 않았고,

들은 걸 믿어 주셨고 이해해 주셨어요. 이런 믿음과 이해가 저에게는 자신감과 성실한 태도를 갖게 했습니다”라고 밝힌다.

초, 중, 고교때와는 다른 대학 교 학생회위원장으로서 “성적이 주가 되어 임원을 이루었던 그때의 학생회는 어른들의 경직된 사고로 우리의 능력을 한계지어 놓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일을 주제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대학교 학생회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대학의 학생회가 사회를 혁신운동인 데모와 복지사안등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성준에게 학생회의 임원으로 우뚝 설 것을 기대해 본다.

선택한 것을 생산적으로 개척 해야지요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4남매를 잘 키워주셨죠. 만약, 어머니가 많이 배우셨다면 여성운동을 할 해냈을 겁니다”라든가 어머니자랑에 여념이 없다.

자신의 생활신조가 있느냐는 질문에 “내의지로 이 땅에서 살아야겠다. 그냥 세상 흐름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담긴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라며 꼭 실이 달라고 예요면 부를 원한다. 12년의 학교생활에서 국민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때 담임선생님을 가장 존경한다며 “이번

신규교수채용에 대해

88년 학원자주화의 불길이 타오른지도 4년째 접어들고 있다. 학교당국과 합의된 내용 모두가 완결된 형태로 나타나고있지는 않지만 기간 투쟁의 축적물들은 동학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자부심을 느끼지않을 수 없다. 그 중 하나는 91년 '신규 교수채용'이다. 타 학교에서는 교수채용에 있어 학생참여는 임무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며 어느정도 학생참여가 보장되는 학교는 우리학교를 제외하고는 서강대 정도이다. 이번 신규교수채용은 우리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학생참여가 실제

로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모 일간지에 “학생참여가 웬말”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의 기사는 논외로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으로도 교수임용시 학생의 평가는 비상사적인 행위로 통할 것이다. 과연 교수채용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과연 학생들의 비이성적인 행위인가?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학생참여로 '우리' 교수님 모셔야

대로 짧은 정치,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한다는 대학사회의 모든 분야의 요소에서 살아 터지고있다. 젊은 세대는 이 나라의 장래를 어떻게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 할 의무가 있는 젊은 대학인들이 먼저 학원내에서부터 부패된 사회를 하나하나 수습해 나갈 때 새 세상은 돌아올 것이다.

박진하 (사범대 역교과)

70년 선배-동료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구요. 특히, 아리랑의 '우리들의 죽음'이란 공연이 인상적이었어요”라든가 대학의 여러면을 신중히 생각하고 선별해 받아들였다는 다 부지게 말한다.

고등학교 때보다 많아지는 시간에 필하고 싶냐고 하자 “고등학교때도 YMCA 학생회를 맡, 농구부등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많은 세월활동을 했어요. 입학해서 산을 위주로 자유로이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또, 많은 이들과 사귀며 저 자신을 발전시킬 겁니다”라고 대답하는 성준은 모든 음악을 좋아하지만, 플루트 음악을 특히 좋아한다고 한다. 세상에서 부모님을 가장 존경한다면서 “두 번은 많이 배우시지도 않았고,

들은 걸 믿어 주셨고 이해해 주셨어요. 이런 믿음과 이해가 저에게는 자신감과 성실한 태도를 갖게 했습니다”라고 밝힌다.

초, 중, 고교때와는 다른 대학 교 학생회위원장으로서 “성적이 주가 되어 임원을 이루었던 그때의 학생회는 어른들의 경직된 사고로 우리의 능력을 한계지어 놓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일을 주제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대학교 학생회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대학의 학생회가 사회를 혁신운동인 데모와 복지사안등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성준에게 학생회의 임원으로 우뚝 설 것을 기대해 본다.

선택한 것을 생산적으로 개척 해야지요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4남매를 잘 키워주셨죠. 만약, 어머니가 많이 배우셨다면 여성운동을 할 해냈을 겁니다”라든가 어머니자랑에 여념이 없다.

자신의 생활신조가 있느냐는 질문에 “내의지로 이 땅에서 살아야겠다. 그냥 세상 흐름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담긴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라며 꼭 실이 달라고 예요면 부를 원한다. 12년의 학교생활에서 국민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때 담임선생님을 가장 존경한다며 “이번

목매골
나날이 새로운 모습이 되고자 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작은 마당을 열어드리려 합니다. 저희 RCY에서는 91년도에도 야학활동을 함께 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야학에 관심이 있거나 야학교사가 되길 원하시는 학우는 RCY세월꽃으로 찾아오셔서 따뜻한 사랑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①대상: 90-91학년 및 야학에 관심이 있으신분
②모집기간: 91년 3월~4월
③과정: 중등과정
④장소: 신당직접자 청소년학교
⑤야학전화번호: 234-9125
역사교육인 모두 모두 모집시다. 오는 8월 늦은 5시 교수의당에서 역교과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포랑포랑한 후배가 왔는지 와서 봅시다.
-역사교육과 학생회
신입생 여러분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재동대 마산학우회
신신한 91학번이 된 보람을 축하하며 보람(전 인월90)아, 너의 새로운 입학에 축하하면 캠퍼스를 누빌 날 생각하니, 우습기도 애절한 열심히 활기차게 살아가.
-보람이 친구
불교학과 90여러분께 알립니다. 3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 M-T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후배를 아끼고 선배를 존경하는 90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여하여 이후 우리들의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봅시다.
-불교학과 과대표장

동학 광장
한할아버지가 목매골에서 내려와 “이것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한사람의 업자가 배를 타 먹는게 아닙니다. “그럼 이것이요?” 아닙니다. 우리의 뜻은 학교행정의 편의가 아닙니다. “도대체 일만동학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는 학교의 책임의식과 신당의 직영입니다.
-국문과 학우회
학우여러분, 방학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곧 동학의 파수꾼 “규찰대”도 만들결정할요. 저랑 손잡고 함께 동학을 복지언덕으로 꾸며보지 않겠습니까?
-씨름소
문과대 문화부장님! 장간사에 지나쳤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올해 전폭적인 사업을 강화하시려면 건강이 중요한데... 1, 200명전학우와 1만동학의 화합사업을 위해 건강하세요.
-함께 길을 가는 후배가
3월 7일 우리의 친구! 해영아! 생일을 축하한다.
-무역 90 풀풀이 스머프
성동인이여! 세종대왕 할배 주머니에 담고 부처님 발밑에서 3월 15일 오후 5시까지 모입니다.
-재동대. 성동문화회
교육학과 91학번의 입학에 축하하며 91학년 학생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 멋진 학생들이라 확신합니다. 세월은 유수가 아니라 총알같이요. 후회없이 바빠세요. 선배님(특히 90학번)과 잘 어울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교육학과 90학번이
숙향 노동조합원을 도와주면서, 새로운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에 익숙해진 내게 이 싸우는 더이상 가르칠 것이 없구나. “학살트럭!” 준비하고 있는 시월은 꼭 합격하길 바란다.
-목매골 씨름부
91학년 신입생 여러분!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반성하며 살아가는 알찬 한해를 보십시오.
-제23대 사범대 학생회
싱그러운 3월 저희 고진기타와 ‘현악’에서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한 연주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91. 3. 23 오후 4시30분
-장소: 중 강 당
3월 9일은 문화회 친구인 예쁜 수연이의 생일입니다. 우리모두 축하해주며 사랑가를 불러주도록 합시다.
-캔디
당신을 축하합니다! (야간강과 무역학과 1학년 대표에 출진(91)군이 당선되었음을 알립니다.)
철진아! 학우들이 주인공이 되는 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 열심이 뛰어야 한다.
-어느 선배가
“개강잔치”에 초대합니다!
일시: 3월 8일 늦은 6시 장소: 동국관 앞
술이나 먹고 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91년 한해를 출발하면서 신입생 복합세, 교수님과 한자리에 모여 야간공동체 생활을 꾸려봅시다.
-제7대 야간강과 총학생회
성윤이형! 91년도 생활회와 회회장이란 엄청난 보직을 맡게된 전신(?)으로 축하드려요. 깨끗함과 순수함으로 모든 탄압과 억압을 이겨내세요! 시간있으면 포카 한판 치시다.
-동이고 36.5기
경제학과 91학년 신입생여러분들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F.O.D.E(경제학연구회)재학생일동
오는 14일 준연(예교3)가 군에 가요. 부디 품성히 돌아오길 바랄뿐이라고 전해 주세요.
-지건이가
지교과 신신한(?)91학년 학생들의 입학에 축하합니다. 봄날에 새색이 돋듯 예쁘게 멋지게 떠나세요.
-87학번선배 동문
사범대학생회에서는 앞으로 있을 정기총회준비와 친목도모를 위해 오는 6일 오후 5시 사대실에서 각과1학년 대표자들을 뽑기를 원합니다.
-부학생회장 민영
91학년 후배들아! 입학에 축하한다. 앞으로 펼쳐질 너희들의 대학생활을 멋드러지게 만들어 보자.
-역교과 90 재수
우리친구 수연이가 9일이 생일이래요. 겨울방학 동안 많이 빠진 연이의 무한한 건강을 바라며, 지금보다 조금만 이뻐지길 바란다구 전합니다.
-수연이를 좋아하는 경애
온 방골

온 방골
나날이 새로운 모습이 되고자 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작은 마당을 열어드리려 합니다. 저희 RCY에서는 91년도에도 야학활동을 함께 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야학에 관심이 있거나 야학교사가 되길 원하시는 학우는 RCY세월꽃으로 찾아오셔서 따뜻한 사랑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①대상: 90-91학년 및 야학에 관심이 있으신분
②모집기간: 91년 3월~4월
③과정: 중등과정
④장소: 신당직접자 청소년학교
⑤야학전화번호: 234-9125
역사교육인 모두 모두 모집시다. 오는 8월 늦은 5시 교수의당에서 역교과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포랑포랑한 후배가 왔는지 와서 봅시다.
-역사교육과 학생회
신입생 여러분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재동대 마산학우회
신신한 91학번이 된 보람을 축하하며 보람(전 인월90)아, 너의 새로운 입학에 축하하면 캠퍼스를 누빌 날 생각하니, 우습기도 애절한 열심히 활기차게 살아가.
-보람이 친구
불교학과 90여러분께 알립니다. 3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 M-T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후배를 아끼고 선배를 존경하는 90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여하여 이후 우리들의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봅시다.
-불교학과 과대표장

학술기획

수서비리 은폐조작 청년학생 분노한다

# 90년도 석사학위 논문 요지 '지방 자치제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 확립방안'

## 지방재원 증대위해 세원 재분배 필요

### 자치재정권 부여,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

#### I. 하나

지방자치의 이념은 성숙되고 문명화된 삶의 터전에서 찾을 수 있는 성숙한 이념인 반면 아니라 현대의 민주적 토양속에 깊이 뿌리박힌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정치와 기본이며, 역사적 산물로서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며 발전해온 제도이다. 유럽에서 시작된 지방자치제는 제각기 다른 환경속에서 변화해 왔으며, 마침내 근대적 의미로서의 지방자치 즉, 민주적 통일국가내에서의 존재를 전제조건으로 민주주의와 지역분권사상이 동시에 결합된 제도도 나타났다.

지방자치의 효율적 실시는 바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위임·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

지방정부가 그 기능을 수행기 위한 자원의 획득, 분배를 담당하는 지방재정의 의의는 매우 크다.

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행정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자치행정 독자적인 재정, 주민참여 등이 그 기본적인 요소 작용한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지방행정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시 되고 있으며 오늘날의 경제발전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는 지역 주민의 자치적 함양과 자발적 참여 및 자부심의 발현을 위하여 가장 좋은 제도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그의 존재 및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 경제·문화·사회적인 성장에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물론 국민경제의 향상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바 자원의 획득, 분배를 담당하는 지방재정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 II. 둘

지방재정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스스로 확보하고 그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자치재정권의 부여는 지방자치의 실질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 간주된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재정의 비중은 지방자치의 정도에 비례하며 오늘날과 같이 산업이 발달하고 복지행정의 수요가 급증하는 사회에서는 지방재정의 충실화 없이는 국가 시책의 완전한 구현을 기대할 수 없기에 이의 보완관계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기능을 지역 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일련의 입부와 기능의 주적으로 본다면 지방재정의 역할은 자원배분의 조정, 소득분배, 경제안정화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역할에 비해 재원조달 능력은 매우 저조해 지방재정은 위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수준의 확대, 분권화의 촉진에 수반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주민생활기반시설의 균형공급, 환경정비 등 의 분야에서 현저하나 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우며, 기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재정의 수지균형을 이룩하는 것도 험악한 임업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총재정규모의 빈약성에 비해, 지방재정의 경우 세수의 신장률이 높은 소득 및 소비지출에 대한 과세에 국한된 편중되어 있고, 또한 대도시에 편중되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재원의 증대를 이루고 있는 세수입은 과세율연상의 경직성과 종류에 따라 성질과 기능이 달라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이 곤란하며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지역편차가 심하며, 특히 세수입 증 가장 큰 부분인 지방공기업의 경우 그 수가 적으며 그 것도 상수도와 병행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간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지방재정 확립을 위하여 지방세율의 조정과 세원분배를 통한 세의 수입증대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경우 교부금 절대액이 부족하고 교부대상단체의 구분이 비합리적이어서 지방단체로 전가되는 국가사업의 재적부담의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기반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지방자치 기초단체가 당면한 지방재정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국세와 지방세간의 합리적인 세원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방재정의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지방세율을 조정하며, 새로운 세원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용자·수수료의 요율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징수대상자의 확대를 꾀하고 세원분배를 위한 노력을 통한 세외수입증대도 필요하다.

현행 지방공기업의 제도적 재편, 운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지방세수 증대도 생각해야 한다.

셋째,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운영으로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해야 하며, 국고보조금의 적정화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보조하는 제택이 보조금의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할 것이다.

네째, 또한 지역경제의 영세성, 지역적 불균형 및 의존성을 극복하여 지역경제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확립이 필요하다 하였다. 이상의 지방재정 증대를 위한 방안들이 하루아침에 성취될 수는 없으나, 분야마다 특성을 고려한 전 문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배진수

<대취원 행정학과>

### 서평

흔히 시적이 반이라고 한다. 시적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사람은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에게는 그들이 끼울 수 있는 단추가 도처에 널려 있다.

그렇게 도처에 있는 좋은 단추중의 하나가 '컬레기를 벗고서'이다. 대학에 들어서서 신입생들은 '미떨릴 수 있는 자유'와 '술 마실 수 있는 자유'... 등의 수많은 자유가 있음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 그런 자유중에서 하나가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닐까.

책에도 종류가 많이 있다. 수필집도 있고 소설도 있고 '컬레기를 벗고서'와 같은 신입생들의 진지한 대학생활을 위해 기획된 책도



〈도서출판 동북〉 컬레기를 벗고서 2

이 책은 올바른 대학생활에 대해 고민했던 선배들이 진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 있다.

또한 정운영(한겨레신문 논설위원)씨가 경제학에 대해, 황원기(경기대)교수가 한국경제에 대해, 김세균(서울대)교수가 학생운동을 '좌경용공'이라 매도하며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위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새내기들의 더없이 좋은 길잡이 선배들의 진실한 고백 담뱃담아

있다. '컬레기를 벗고서'는 이름 그대로 고교교육이라는 입시교육의 컬레기를 벗고 새내기 대학생활을 준비하는 신입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이 책은 새로운 대학인들의 첫걸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1부에서 '길잡이' 3년을 돌아보며'라는 주제로 전교조 선배님인 신명철씨가 주제성을 상실하는 학교교육에 대해서, 김진숙씨와 이미연씨가 왜곡된 교과교육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2부의 '현실'은 눈을 돌려'에서는 이성태(경희대)씨가 직접 더 심해지는 주체문제에 대해서 쓰고 있고 신철영(한양대)씨가 노동운동과 열악한 노동자의 생활에 대해서 쓰고 있다.

3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백기완씨와 리영희교수가 통일과 남북한정세변화에 대해 정부의 반동적인 모습에 일침을 하고 국제정세와 문화에 대해서 전완하, 박도영, 김장남, 이영미씨들이 선배로서 자상한 설명을 곁들여 주고 있다.

4부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에서는 서울대 프락치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류시민씨가 자신이 이른바 문제학생이 된 동기를 말하고 그것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좌경용공 학생이 아닌 것이라는 어머니의 주름살과 이방의 민중들을 위한 일이었다고 진지하게 고백하고 있다.

또한 부천시 성고분사건의 권인숙씨 후배와의 만남속에서 느낀 여러 생각들을 말하고 좀더 실천적인 대학생이 되어 활동하라는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5부 '대학생 그는 누구인가'에서는 대학과 대학문화, 연예관중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대학의 양심과 올바른 대학생활에 대해 고민했던 선배들이 현재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간에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 흔히 이야기하듯 현실과 동떨어진

이 책은 가볍게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진지한 고민과 치열한 실천에서 하나하나를 알아나가고자 하는 신입생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리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이 이 책을 읽으며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친 손을 가진 대학원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유경준 기자)

## '91 단체협약안 쟁점

### 2. 인사·경영권의 교섭문제

90년 들어서면서 정부와 자본가가 가장 강력하게 들고 나오는 것이 소위 인사·경영권 문제이다.

정부와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노동부와 경단협의 주장은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재산권에 기초하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단체인 교섭이 아닌 정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굳이 다룬다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은 가능하다'이다.

실제로 경단협의 이러한 지침 이후 단체협약을 진행해 오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이권이 나 조합원의 인사 또는 경제문제 등에 대해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면 회사는 위의 사항들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교섭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교적 이러한 조항이 잘 되어 있는 신규사업장

에 근거하여 자기를 멋대로 만들어 낼 발달했다. 90년 들어오면서 정부와 자본가들이 인사·경영권이 단체협약의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매우 강하여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산업구조조정정책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서서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근거가 없고 정치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인사·경영권'의 교섭 제외문제는 향후 조합활동에

## 회사고유 권한 입장 불변 노조활동 약화 시킬 의도

등은 노동조건의 유지, 향상과 관련하여 있는 노동자의 생존권의 문제이다. 사실 인사·경영권이라는 말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개념임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즉 인사·경영권이 라는 말은 정부와 자본가가 재산권

에서 사할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단체교섭 대상에 정해, 해고, 이직, 휴·폐업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반드시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서노협 선전부장)

## 학생증 추가·재발급

'91학년도 학생증 추가 발급 및 재발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학생증 추가 발급 및 재발급 대상  
가. 추가발급대상: 신입생 중 미발급자, 복학생, 편입생.  
나. 재발급 대상: 재학생중 학생증 분실자.
2. 학생증 발급절차: 학생증 발급 신청서 교부-장학과  
3.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가. 추가발급대상: 등록금 납입 영수증 지참  
나. 재발급 대상: 신청서 접수시 재발급 수수료(수입증지 10,000)를 경리과에 납부후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할 것.
4. 신청기간: 1991. 3. 4. ~ 3. 30일까지

## 학생처장

## 도서차람증 발급 및 미납도서 반납 안내

본 중앙도서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91학년도 제1학기 도서차람증 발급 및 '90학년도 미납도서 반납을 안내합니다.

1. 도서차람증 발급  
가. 발급기간: '91.3.11(월)~3.29(금)  
나. 준비물  
① '90학년도 도서차람증(신입생제외)  
② '91학년도 제1학기 등록영수증 또는 학생증  
③ 최근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2. 발급장소: 중앙도서관 열람과(1층)  
3. 미납도서 반납  
가. '91.2.25 이전에 대출한 도서를 아직 반납하지 아니한 학생은 '91.3.15까지 반납할 것.  
나. 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서차람증 발급을 유보하고, 그 명단을 각 학과에 통보하여 게시토록 하며, 학과에게 제 증명 발급을 중지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 중앙도서관

## 수강신청 확인 - 정정

'9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기 간: '91. 3. 11(월) - 3. 13(수)
2. 장 소: 소속대학 교학과, 학과
3. 대 상: 전 교생(이반학위 복학, 재입학생은 위기간에 수강신청)
4. 유의사항:  
1) 수강신청의 임의변경(취소, 추가)을 할수 없음. 단, 전산처리 오류나, 분반, 폐강으로 인한 강과 변경등의 경우만 정정가능함.  
2) 교과목, 학수번호, 강좌번호 및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신입생 특별시험 실시

1991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조기졸업 및 초과학점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특별시험을 실시하니 희망학생은 소정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 이수구분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 점 비 고 |
|------|--------|------------|---------|
| 공통필수 | 21-101 | 국어강독 및 작문1 | 2       |
| 공통필수 | 22-103 | 영 어 1      | 2       |
| 영역필수 | 41-121 | 일반수학 1     | 3       |

2. 응시자격 및 과목  
가. 자 격: '91학년도 신입생('81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91학년도 1학년 복학생 포함)  
나. 과 목: 3과목중 2과목까지

3. 시험일시: '91. 3. 9(토) 09:00부터 \*과목별 고사시간은 추후 확정 공고함. ('91. 3. 8(금) 14:00한)

4. 전형료: 과목당 15,000원 [경리와 수납]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91. 3. 5(화) - 3. 7(목)  
나. 장 소: 교무과 및 일부대학 교학과

6. 합격자 발표: '91. 3. 12(화)예정.

1991년 2월 일  
교무처장

## 북한 및 공산권 정보자료센터

### 이용 안내

본원에서는 북한 및 공산권 관련 정보·자료를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한 및 공산권 정보자료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치: 서울 광화문우체국 6층(동아일보사 옆)
- 운영시간: 평 일: 09:00~17:30(11~2월은 16:30) / 토요일: 09:00~12:00
- 북한영화 상영의 날 운영  
○ 북한제작 극영화 상영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14:00~16:00  
※일반인에 관람허용(관람전 사전예약)
- 특수자료열람 및 토론회 개최  
○ 대학생 대상 전공분야별 토론회, 귀족자유의 대담 토론회 실시
- 센터이용 회원제 운영  
○ 교수, 대학원생, 관계전문가 등 대상  
○ 원내생상 간행물지정, 개인연구 및 집필편의를 위한 연구실 제공  
※이용 희망자 개별 신청
- 이용안내: TEL. 730-7013, 7014

| 구분     | 자료내역   |
|--------|--|
| 문헌자료실  | ○북한 및 공산권에 관한 국내외 도서 및 관련 정보·자료 문헌<br>○공산주의 원전<br>○기타 북방정책 관련 정보·자료 문헌 등 |
| 정기간행물실 | ○북한 및 공산권 간행 정기간행물<br>○북한 및 공산권 관련 국내외 정기간행물 등                           |
| 시청각실   | ○북한 및 공산권에서 제작된 각종 영상자료<br>○각종 기록순안용 마이크로필름 등                            |

통일원 정보자료국

## 힘·찬·출·발

1991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아침

21세기의 주인이 되는 동트는 이 아침에

동국인의 눈망울을 지키며

진실로 동국인을 사랑하는 자?

세일콘택트안경

어둠을 사르고 사랑의 길을 열자

- 학생복지위원회 관리업체 -

— 밝고 맑은 렌즈 —

세일콘택트안경

다할관 지하2층/개강 대봉사

사회보도

수서비리 은폐조작 청년학생 분노한다

남현진군 군대내 의문사

한국군 본질적 모순서 기인

- 5공화국 들어 '학원가, 붉은 색깔 푸르게 하라'는 녹화사업
- 이보안사에 의해 행해지면서 군대내 의문사가 발생하는 등
- 군의 민중탄압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 이번호에는 군민주화를 새삼 강조하며 지난 2월3일 군대
- 내에서 반사제로 발간된 남군의 장제시 상황과 해방이후 한
- 국군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한국군의 본질적 모순을 밝힌다.

"내가 삼남매를 낳았는데 와 들 뿐이요! 우리 현진은 어때졌노. 우리 아들 현진이 어때졌노. 우리 아들 현진이 어서 살려내라, 살려내! 현진아! 현진아..."

죽은 남현진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이 땅속에 묻혀있는 것에 오열하며, 이를 막고 권위의 태극기에 얼굴을 묻고있는 하영희가 흐느끼고 있었다.

남현진군의 친형 남중진씨도 무겁게 다들린 검은 권위에 흠을 뿌리기 위해 부어준 심자부를 움켜잡을 모며 눈시울을 붉혔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조국강산에 묻어달라.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 가슴에 묻어달라. 안합니까? 그런데 이놈은 어머니 가슴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군대는 무서운 곳이라고 아예 우리 가슴에 싹둑을 치고가네 그러"

장제식에 왔던 조문객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허탄했다.

이날 26일 저녁 6시 장지인 모란공원에서 가진 남현진(한국군 국어대생)군의 장제식(한편이다.

이 장제식에서 임관된 남현진군의 군의문사가 알려진 것은 임대 70여일만인 지난 2월3일, 소나무에 복매단 그의 편사제가 발견되면서 부터이다.

한편 현제까지도 남군이 죽기 얼마전인 1월14일부터 24일까지의 행적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

리나 1월24일 이후 남현진군의 모습은 매우 달라졌다고 한다. 같은 얼굴에 마치 무슨일이 있던 것 같다는 동료의 증언, '아무말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네가 유추해석해야만 한다'는 문구와 함께 심리적 불안이 가득한 상태의 편사내용은 뭔가 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 자신을 엄습하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총학생회 기획2부장, 89년 전대협 한라 신봉대 용성출연 대표동 학생운동 경력에 있는 남현진군에게 '프락지'활동을 강요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그간 군에 의해서 속출한 무수한 군의문사를 돌이켜 보면 너무나도 자명해진다.

88년 10월5일 국방부 감사 자료에 의하면 88년 이후 군부 대인의 군사사고 사망증 자살이 2천2백54명이며 연간 군부대 안의 사망원인은 8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내 자

위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분명한 울중, 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라는 거대한 위력 앞에서 사건은 역사속에 꼼짝없이 사장되어온 것이 관례(?)되어 온 것이다.

"군대에서는 원근이가 처음에는 오른쪽 가슴에 쓰였다가 죽지않자 다음에는 왼쪽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때도 죽지 않자 마지막으로 머리에 쓰고 죽었다는 얘기를 하니 누가 믿으려 합니까?" 학생운동과 관련이 없으나 머리, 양귀에 M-16 소총 3발이 박힌채 '자살했다'는 허위근(일병, 84. 4.2 부산 수산대) 군 부친의 말이다.

"교내 시위현장에서 연행, 강제입원되었다가 군대에서 반사제로 발견' '군에서 녹화사업으로 고문수사 받음, 가슴에 3발의 총탄자국을 남긴채 사망' '보안사 요원으로 학원 프락지 노릇을 강요받다 목졸린 반사제로 발견' '내통령 부재사 투표시 야당후보에게 투표 구타로 사망' '상관에게서 보살핌을 강요받다 불에 탄채로 발견' '급히 귀대라는 명령을 받고 귀대후 심중, 음독자살이라고 발표되었으나 목졸린 흔적과 칼에 의한 상흔'

5, 6공화국에서 발생한 군대 의문사 사건상황중에서 몇가지 요약한 것이다.

"군과 군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요. 군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구조체제인 것이고 군인은 민중의 계도에 복무하고 있는데 다수 민중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KNCC인원위원회에서 양심선언을 한 연성홍(일병, 88. 1. 28)씨가 밝힌 것처럼 현재 남한의 군인은 민중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해진 군복무 속에 서 죽어가고 있는 셈이다.

일제가 무너진 공간에서 남한민중은 자치적 무장군대를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미군정은 '사실군사단체 해산에 관한 명령'을 포고하면서 이러한 남한민중들의 자치적노력을 무산, 무력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군을 사령관으로 하는 국군의 모태인 '국군경비대'를 창설하게 된다.

초창기 경비대는 원칙적으로 미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주요 지휘관은 부원장교들로 구성되어 일본군의 침략적 전봉과 군대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여머리가 되는데 이는 한국군의 성격을 규정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또한 제2주 4.3형성시 군의 대규모 민중학살,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제2주독학살참여자부와 여순반란등으로 군내부의 대립상은 표면화 되는데 이때라 군내의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탄압과 숙청작업이 실시 되어 한국군은 '반공의식'으로 철저한 무장된 극우세력만의 보루로 남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맥아더 당시 사령관은 한국군의 지휘권마저도 미국의 손에 넣을 필요성을 느



까지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50년 7월15일 미국에게 '각진지위를 양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치사가 담긴 "지휘권은 귀하시신 또는 귀하에서 한국군 또는 한국군 해에서 행사피도록 위대한 사령관이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때부터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군사적자주권을 미국에게 박탈당한 시발점이 되었고 3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계속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정치사에 있어 군의 정치개입은 매우 각별하다.

61년 5월16일에 이르러서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군인들이 민중을 대한 본격적인 군사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하였다. 정권을 찬탈하고 군인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들 군부정권은 젊은이들의 피를 한 팔과팔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구축한 경제적으로 유신 독재체제를 유지해 나갔다.

학이나 살해기등의 방법까지 동원하여 군대를 거부하는 다중다기한 전술(?)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원 KNCC 에서 이종근, 김종대씨등 5인의 장교가 발표한 명예선언을 보면 사병뿐만 아니라 장교들까지 군 내부의 모순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반발들은 폐쇄적 공간인 군내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대에서 진행되는 '의식화 작업' 및 '군 민주화를 위한 조직'의 현황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88년, 89년 군사법원에서 접수처리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88년 5건 89년 16건으로 차츰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편 불규칙한 양심선언이나 군대의식화, 학습사건에서 취해졌던 즉지적 대응이 아니라 군의 인권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상징적 대항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군부의 탄압은 5공화국에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학원가 붉은 색깔 푸르게 하라'는

등을 강요했다는 것은 그리 무리한 추측만은 아닐 것이다.

"실사 군에 징집된 젊은 대학생들이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군'이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자살이나 타살이나 문제는 그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라는 사건의 본질속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한국의국어이대학교의 '남현진 군인대 의문사조사규명 대외위원회'의 이영록 장제 집행위원장은 말한다.

아직도 남현진군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게 국회위원의 조사단 결성과 활동을 요청하고 있지만 박정희연사의 고문자사가 밝혀지면서 경원의 위기의식이 노출되었던 것처럼 '군 의문사'를 올바로 규명하는 것은 현정권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에 다음아닌 것이다.

'군의문사'는 현정권의 가장약한 고리이며 모순의 결정체이다. 때문에 현정권은 자신을 지탱시켜주는 물리적으로서도 군대에 존재하고 있는 한 '군의문사'를 올바로 해결할 의사와 능력도 없다고 본다.

91년 상반되는 민자당이라는 반민족적 비민주적 집단에 대한 국민의 의식화된 분노를 개량화시키는 국면이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92, 93년 권력재편기에 군대라는 치사하고도 막대한 물리력을 동원해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역시 더욱 거세질 것이다.

남현진 것은 이미 종전의 역사속에서 은폐되어진 '군의문사'의 또다른 이름일 뿐이다.

또다시 제2의 남현진인 송중호(서울대학교, 서문87)씨가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그것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해상과 창물사이에서 아홉이 끼여 죽은 상태-에서...

그리고 내일이 되면 제3의 남현진, 어쩌면 내가 될 수 있는 이 싸늘한 주검으로 우리앞에 나타날 것이다.

원시기 백만 청년학도는 남현진군의 '군의문사'를 개량화되어가는 정세를 돌파해 나갈 침범으로써, 하나의 소중한 계기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보호아래 반민중적 극우보수성 심화

사람들이 제기한 의문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살'이라고 볼 수 있는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정확한 사인은 질사사라고 발표된 군 당국의 잡혀있는 자라에도 불구하고 남군의 죽음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도 남군이 죽기 얼마전인 1월14일부터 24일까지의 행적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

것이요, 그 요구를 해결하는 방법은 재단의 대표이사 사장님과 학교의 주체인 학생, 그 학생 대표가 만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의지는 총학생회장 오규석(현의학 3)군과 학생들의 호응을 이사진은 면담을 승락하고 오는10일전

식은 무슨일이 있어도 군대에 보내지 않을 거. 군대 가서 죽느니 차라리 감방을 보내줘 군대에서 무슨일이든 사인은 질사사라고 발표하면 하시는 유가족협의회 소속 김아무개씨의 마음은 바로 우리들, 부모님의 심정인 것이다.

또한 군대에서 죽어간 이들의 사인은 불확실하기 짝이 없다. 사인이 은폐되어 교묘하게 자살 등으로

“이젠 가시과 허상이라는 겁데기는 가고 진정 중국의 현실을 가슴이파하고, 발전은 모색하며 추진할 수 있는 알맹이, 즉 재단, 학교당국, 학생이 모여 하나의 동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한 학생의 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동국의 알맹이는 학신년 재단과, 자주화된 학원과 주체로선 학생들이 있을때만이 밝을 것이다.

(이진호 기자)

**경의로**

"이사장님을 뵈게 주십시오"  
"재단원칙 정취하여 동국발전 앞당기자! 앞당기자! 앞당기자!"

지난달 27일 경주캠퍼스 졸업식장을 향해 가던 내.외국인등 학교교수를 막으며 이사장님과 면담을 요구하던 학생30여명의 외침.

"자네들의 말뜻은 알겠네만 우리는 무슨 날인가? 자네들 때문에 행사가 지체되고 있으니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이사장님과 면담을 하라" 하며 한 교수는 졸업식을 이유로 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지화들은 졸업식을 불모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하시려는 우리의 선배님들도 학교가 발전하는 것을 원하실

**겁데기는 가라!**

동국발전

까지 면담날짜를 통보하기로 했다.

1시간 동안의 실랑이가 끝나고 졸업식은 시작되었으나 졸업식도 편지 않았다.

"삼국외가 있었습니까... 바"

인권의 사각지대 '군'...

민주화 시급

합군'으로 개편되고 국군현대화를 표방하게 되는데 정부예산의 36%를 군사비에 지출하여 급기야 한반도 반쪽양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으로 탈 바꿈된다. 10.26사태는 18년간 폭압적 독재정치를 자행했던 군부정권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때 육사11기를 중심으로 12.12쿠테타를 일으키자 이 군부정권이 항거하는 광주민중들에게 무자비한 군사력을 과시하게 된다.

이렇듯 한국군의 시작 맥락은 반민중적 군부에 의해서 주도되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을 매개로 한 민중의 투쟁역사도 계속 진행되어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될 수는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노동쟁투투신을 위해 군입대를 기피하거나 관련교육, 병영정제교육, 전방임업교육등 대학생들에게만 군사교육만 대 투쟁 및 양심선언, 탈영, 자결등이 진행되었으며 급기야 대학원진

특히 학원 KNCC 에서 이종근, 김종대씨등 5인의 장교가 발표한 명예선언을 보면 사병뿐만 아니라 장교들까지 군 내부의 모순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반발들은 폐쇄적 공간인 군내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대에서 진행되는 '의식화 작업' 및 '군 민주화를 위한 조직'의 현황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88년, 89년 군사법원에서 접수처리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88년 5건 89년 16건으로 차츰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편 불규칙한 양심선언이나 군대의식화, 학습사건에서 취해졌던 즉지적 대응이 아니라 군의 인권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상징적 대항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군부의 탄압은 5공화국에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학원가 붉은 색깔 푸르게 하라'는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 대출은 학생여러분의 면학을 돕기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대출하여 드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융자제도로서 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 하고 있습니다.

**1. 상환방법**

| 구분     | 상환기간                                   | 상환방법  |
|--------|--|---|
| 단기 학자금 | 대출후 1년 이내                              | ○매월소정 납입기일에 대출원금의 균등분월액과 대출금리(거치기간)에 대한 이자를 납입<br>원금: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3년간 매월 균등분 상환<br>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대출후 매3개월, 원금상환기간중에는 매월 납입 |
| 장기 학자금 | 85.8.1 이전대출과<br>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3년 이내   | 원금: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 상환<br>이자: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대출후 매월납입   |
|        | 85.12.21 이후대출과<br>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5년 이내 | 원금: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 상환<br>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매월, 매3개월 또는 매6개월 단위로 납입<br>원금분할상환기간중에는 매월단위로 납입                             |

주) 장기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으로 군복무예정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대출금 기한 연기절차를 취하시면 군복무기간만큼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후 군복무 기간중에도 이자는 매월 납입하여야 합니다.

**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은행로서는 제때에 회수를 못하게 되므로 자금의 회전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여학생의 학우들에게 융자하여 드리고자 하는 저희은행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연체가 정리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의 확대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일반서민대중이 알뜰히 저축한 자금으로 융자하여 드리고 있는 점을 심본 감안 하시오 연체금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율리 부득이하여 연체를 하시는 분은 대출을 받으신 지점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징병검사 및 병역처분 기준 안내

**<학생처 제공>**

**○91년 징병검사 대상**  
-72년 1월1일~72년 12월31일 출생자(19세)  
-가타 연기 사유가 해소되거나 연기기간이 끝난자

**○재학생 입영 연기**  
-19세자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전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징병검사를 받은 후 고교이상의 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한 자는 학교별 제한연령(전문대학:22세, 대학:24세, 대학원:26세)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출원없이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

**○재학생 입영원 인내**  
-재학생 입영을 원하는 자는 학적을 보유한 채 본적지 구·시·읍·면에 재학 생 입영권을 출원하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립니다.  
\*입영통지서 수령후-휴학 수속(학업 공백 해소)

**○학력별로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 되는 기준**

| 구분     | 학력         | 고졸이상          | 고교중퇴, 중졸, 중학중퇴 | 국졸이하 |
|--------|------------|---------------|----------------|------|
| 방위소집대상 | 신체등위 1, 2급 |               |                |      |
| 방위소집대상 | 신체등위 3, 4급 | 신체등위 1,2,3,4급 |                |      |
| 방위소집면제 |            |               | 신체등위 1,2,3,4급  |      |

\*주요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은 징병검사통지서 송달시 보내드리는 "징병신체검사 처분기준"에 판매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징병검사 출원**  
-본적이 타시도인 자로서 서울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본적지와 거주지 징병검사 장소가 동일한 경우 제외) 거주지 구청 징병검사 개시 30일전까지 거주지 징병검사원지 1부를 통사부서에 출원하면 됩니다. (단, 본적지 징병검사 기일이 경과된 사람은 제외)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당면히 보충역이 되는 사유**

|           |   |
|-----------|---|
| 방위소집대상    | ·방위소집자원이 부족한 취약,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현역 병 입영대상자중에서 보충역으로 처분이 변경된 자(대학자는 제외)<br>·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자<br>·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 60세 이상인 독자, 2대이상의 독자<br>·전사, 순직 또는 상이정도가 5급이상인 전, 중상 군인의 자제중 1인 |
| 방위소집 면제대상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br>·2년이상 실형의 선고받은 자(집행유예자 제외)<br>·고아, 사생아, 귀화자및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
| 특례 연구요원   | ·적사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자   |
| 보충역 기능요원  |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 기간 및 방위산업체 종사자 중 기술자격 소지자  |

**○구정별 징병검사 일정**

- 서울상설징병서:14개구정
- 외경부상설징병서:8개구정

| 구정별   | 검사기간        | 구정별     | 검사기간            |
|-------|-------------|---------|-----------------|
| 강 동 구 | 2. 5-2. 13  | 서 초 구   | 10. 8-10. 17    |
| 구 로 구 | 2. 18-3. 6  | 송 파 구   | 10. 18-10. 29   |
| 중 로 구 | 3. 7-4. 8   | 관 약 구   | 10. 30-11. 16   |
| 용 산 구 | 4. 9-5. 18  | 노 원 구   | 2. 5-2. 12(의정부) |
| 영 동 구 | 5. 20-6. 17 | 은 평 구   | 2. 13-3. 5(의정부) |
| 동 양 구 | 6. 18-7. 11 | 동 대 문 구 | 3. 6-3. 29(의정부) |
| 강 서 구 | 7. 12-8. 8  | 성 동 문 구 | 3. 30-5. 2(의정부) |
| 마 천 구 | 8. 9-8. 19  | 성 서 문 구 | 5. 3-5. 30(의정부) |
| 양 표 구 | 8. 20-9. 20 | 성 북 구   | 5. 31-7. 5(의정부) |
| 양 천 구 | 9. 13-9. 25 | 도 봉 구   | 7. 6-7. 26(의정부) |
| 강 남 구 | 9. 26-10. 7 | 중 랑 구   | 8. 5-8. 17(의정부) |

**○병무상담이나 병무부조리신고는 각지방 병무청(국번) 3911로**

사회기획

수서비리 은폐조작 청년학생 분노한다



# 험값에 사들여 정부가 '땅장사'

## 수서사건 통해 본 정부의 주택정책

한보의 특혜분양에서 시작된 '수서사건'은 단순회 몇몇 정부 관료의 비리자연을 벗어난 정와대, 국회, 보수야당등 모든 정치권력의 반민중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연일 신문지상을 오르내렸던 정와대의 독점개발과 유착관계, 평민당의 뇌물수수, 언론사의 손지수리사실등은 전 민중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으며, 사건중결발표이후에도 이를 매개로 대정권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는등 본격적인 정치투쟁이 고양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온 국민의 관심이 수서사건에 모아지고 있는 반면 정장 생활터전을 수서·일원지역에 잡고있던 현직주인의 철거소식은 그리 언론의 뒷안으로 밀려나왔다.

기자가 수서·일원지구로 찾아갔을때는 일요일의 한낮이었는데도 각종 포크레인과 트럭 등이 동원된 택지조성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마을입구에 들어서자 주택가 담배막과 비닐하우스에는 '공영개발한다면서 특혜분양 웬말이야' '수백내려와 살라' 등의 구호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휘갈겨져 있었다.

"아니 공영개발한다면서 6백여년동안 대대로 살아오던 농토를 빼앗았거라 있그제인데 험값에 사들여 특혜분양

을 해줬더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농민들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고 뭐니까?" 태어나서 줄곳 이곳에서 농사 짓고 살았다는 한 주민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땅을 빼앗긴 심정을 털어놓았다.

약 8백50여세대가 살고있던 이 지역이 강제수매당한 것은 지난 89년 3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부터이다.

일체의 개발이 금지되어있는 자연녹지지역 일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정부측에 의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구가 절박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오는 28일까지 차질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시키겠다'는 방침이 내려졌다.

일원동 26동 통장 홍진근씨는 "주민들이 일단 철거만 하면 나중에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지만 서울시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특혜분양조사에서도 계속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것이 뻔히 보이는데요. 노태우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불을 보듯 새빨간 거짓말일 겁니다"라며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농지를 지키겠다고 말한다.

한편 생존권보장문제에 있어서 세입자들의 사정은 더욱 절박하다.

방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주민에게는 다소 얼마간이라도 보상을 받을것이지만 세입자들은 전세금만 돌려받고 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원동에 기입한지 2년이 된다는 공인중개사 박여익씨는 "이 지역 세입자가 전체 주민수의 절반이나 된다"며 그 이유를 원주민이 외부인에게 토

지와 주택을 팔고 그 농토에서 소작을 부치는 경우와 강남의 턱없이 비싼 부동산 가격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값이 싼 이 지역으로 저임금노동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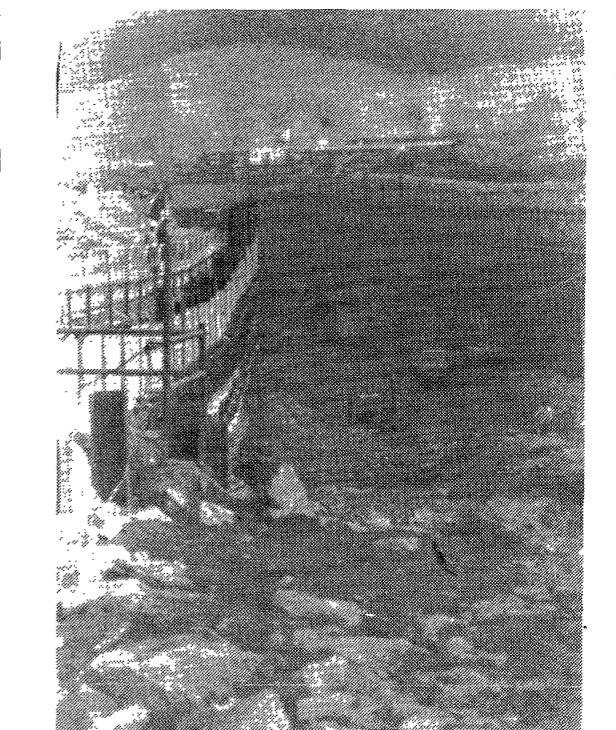
실지로 이 곳에서 6년이나 월세로 살아왔다는 한 이주머니는 "집을 살만한 돈이 없어 일원동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기어이 여기에도 쫓겨나게 되었다"며 "이사비용·전세금보조 등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면서 대기업에는 수천만원의 특혜를 준다

는 것은 험값에 사들여 농토를 빼앗아 버리고는 특혜분양을 하는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한보의 '수서비리'에 가리워져 언론에 오히려 잘알려지지 않았다며 안타까와 하고있다.

이민 언론에 보도된것처럼 한보의 특혜분양은 수천만원에 이르지만 이는 수서·일원택지개발지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수서지구에 의뢰된철거의 명목으로 개발중인 삼정건설사구의 8만평의 부지는 10년전부터



막자는 것이며, 정부가 이러한 대책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철거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수있는 조건들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대서특별위원 '수서비리'는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다.

그러나 반민중적 철거정책, 독점개발과 정치권력의 유착관계, 그리고 현 정권그자체가 존재하는 한 수서비리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 정권의 존재기반은 비리와 착취에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유기용 기자)

## "전세금 보조도 안하면서 수천억 특혜 웬말"

## '선대책 후철거'로 정책전환 마땅

토지를 강제수매 당하게 된다. "평당 30만원으로 보상을 주더니 우리가 이 지역에 살았는데 하나씩 2백만원이 넘는 시가대로 땅을 사가라는 겁니다. 정부가 땅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가들이 대를 이어 농사지던 곳을 험값으로 사들이면서 아무런 생활대책도 마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땅파면 농사꾼이 밖으로 나가

필 먹고 살라는 겁니까?"라며 마을 주민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실 오랜세월동안 가꾸어온 농토를 떠난다는 것은 생활의 터전을 잃는 것이며, 생존수단까지 박탈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인정한 거주지의 마련과 함께 생활대책을 원하는 것은 목숨을 이어가기 위한 절박한 요구인 것이다.

서울시당국에서는 주민들의 이와같은 요구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못세우고 있는 것 같다.

생활대책보장에는 일원반구조조와, 거주지마련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와의 면담과정에서 '공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예기만 했을뿐 공문을 만들자는 주민들의 제의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렇듯 주민들의 생활보장요구를 막아주는 정부의 정책이

박하다. 땅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주민에게는 다소 얼마간이라도 보상을 받을것이지만 세입자들은 전세금만 돌려받고 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원동에 기입한지 2년이 된다는 공인중개사 박여익씨는 "이 지역 세입자가 전체 주민수의 절반이나 된다"며 그 이유를 원주민이 외부인에게 토

# 전국적 대응 통한 노동운동 구심으로

## 잇다른 간부구속 '연대회의'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이하, 연대회의·상임의장 배순환 대우조선원장) 소속 10개 노조간부 67명을 지난 2월 10일 수련회를 마치고 나오는 도중 강제연행하여, 이들 중 7명을 검찰이 지난달 12일 이른바 '노동쟁의 조정법'중 '제3차 기입금지'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무더기 연행사건이 일견 돌발적 사태로 보일지 모르지만 연대회의에 대한 정부 및 자본측의 일련의 감시와 탄압 끝에 발생한 필연적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노동계의 보편적 시각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출범한 연대회의는 그 소속노조들이 갖는 노동운동에서의 위상과 역할로 인해 노동계는 물론 정권과 자본측의 항상적 관심사로 부상했으며 올 91년 상반기

입부를 앞두고 '태풍의 눈'으로 언론에 묘사되기도 했다.

특히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의 결실체로 등장하여 탄압의 주요적이지 않았던 전노협과 연대회의가 서로 손을 마주 잡고 공동투쟁 본부를 결성하게 됨으로써 연대회의는 명백히 또 하나의 탄압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90년 하반기 대거 민주화된 대기업노동자들이 '연대회의'로 뭉치고 '일중노동조합연맹'의 전노협이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 공동주최하면서 총단결의 기세가 갈수록 높아가는 가운데 민주노조들은 91년 입부를 강화한 공동투쟁전선으로 전개하기 위해 준비해 왔으며 대우조선노조의 단합투쟁은 이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자본과 국가권력이 참여 개별노조의 와해책동, 모인에 대한 엄중한 감시 혹은

원천봉쇄 등의 탄압을 하는 의도 및 배경이 어디에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전노협·연대회의 간부 불법연행 및 7명의 노조간부 구속사태의 배경이 일차적으로 는 지난 2월8일 전면파업에 들어간 대우조선노조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차단하는 것이 주

요한 목적중의 하나이다. 또한 주요 대공장 노조들이 결성한 연대회의를 무력화시켜 91입부 기 민주노조 총단결로 강력하게 전개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속셈이다.

대우조선노조의 단체협약쟁 신투쟁은 인사·경제 및 조합활동등 모든 노조의 핵심적인 요구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 입부를 바로 앞두고 시작되

었다는 점에서 91년 입부의 전 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또한 공동입부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노조의 총단결을 이루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무쟁이었다.

둘째, 아직은 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연대회의를 공동 입부과정에서 연대의 내용이

## 연대의 틀 깨기 위한 탄압 집중돼 단위노조 강화로 결속력 드높일 때

강화되기 전에 조기공략하여 무력화시키려는 책동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나아가 현장에 직접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민주노조들의 지도력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대우조선노조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는 이유만으로 '3자개발'이라는 악법의 골매를 뒤집어 씌워 6개노조 각 위원장 스이은구(대우자동차) 스이

철규(동산금융) △정영평(서울지하철) △윤영원(대우정밀) △박정수(한진중공업) △송준규(유호타이어) △홍영표(연대회의 실무간사)를 전직 구속한 것은 연대회의 소속 각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음모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연대회의와 전노협 간부 연행과 구속사태는 전노협과 연대회의로 하여금 음울

이 처음으로 전국적인 공동투쟁에 나서게 만들었다. 투쟁에서 연대회의의 중요성을 보다 분명히 깨닫고 연대회의와 전노협, 단협회의의 결속이 더욱 강고해졌다. 오히려 투쟁과 조직력의 차원에서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의 엄청난 상황을 타개하고자 활동

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운동을 활성화 시킬 가능성을 중대시 시 90년에 비해 보다 큰 힘으로 91상반기 투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연대회의는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구심인 전노협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돼 전노협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 질적 비약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연대회의의 의의가 이처럼 크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연대회의가 해야 할 일은 많고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다. 91년 상반기 입부가 가까워지면

서 탄압은 그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후 연대회의의 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잡는다면 참여하고 있는 단위노조의 조직력을 빠른 시일내 획기적으로 강화해 내고 연대회의내에 구심을 세우면서 지

도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연대회의의 참여노조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별 미참여 대기업노조를 투쟁의 대열로 묶어내고 민주지향적 노조운동의 단결과 통일성을 추동하면서 모자란 역할, 시기와 방법을 논의를 해 나가는 지노협·전노협으로 결

집시켜야 할 것이다. (조인환 기자)

둘째, 연대회의의 존재는 자본과 국가권력의 무단적 탄압

## 80년 전통의 종로서적은 책찾기가 편리합니다

- 1층 예매권·잡지 공영안내, 국내외 정기 간행물
- 2층 기록관 성경, 신학, 신앙, 교양, 문화, 설교, 찬송가
- 3층 사회관·학생관 정치, 경제, 행정, 법률, 메스컴, 세법, 종교교재, 어린이
- 4층 인문관·문구·레코드·방송대 교재 문학, 종교, 역사, 철학, 사회, 교육, 심리, 문구, 레코드, 오디오 부품, 팬시용품
- 5층 자연관·컴퓨터·사무자동기기 농업, 공업, 가정, 의학, 전기, 전자, 토목, 금속, 기계, 이공계 외국 원서, 컴퓨터, 사무자동기기
- 6층 문예관·외국서적관 시, 소설, 수필, 연극, 영화, 음악, 미술, 체육, 외국 원서

신학기 대학 교재 완전 구비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바로 위 - 110-1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84-9 전화/733-2331(매장)·732-2331(사무실)

종로서적

## 대한대학 정규 종합과정

### 제5기 정규과정 모집

| 학과  | 자격        | 정원  |     |
|-----|-----------|-----|-----|
|     |           | 주간반 | 야간반 |
| 총합계 | 대졸(예정자)이상 | 60  | 60  |

1. 모집학과
  - ① 인문학(본인 소정학점) 1부 ② 사정 2장
  - ③ 응용영역 1부 ④ 최종학점정정명시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 ①②항은 수강신청시 ③④⑤항은 수강시 제출
2. 원서교부 및 접수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1991년 2월 18일~3월 15일
  - 10:00~17:00까지 (단, 토요일은 12:00까지)
  - ②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본원 교부과
3. 전형방법
  - ① 필기(필수, 학문)시험과 면접
4. 합격자 발표
  - 1991년 3월 21일
5. 본원의 특징
  - ① 한국 출판계를 대표하는 대한출판문화진흥회기
  - ② 설립목적은 평생교육의 최정점 출판진흥과 교육기관
  - ③ 취업정보실 운영 수료 후 출판·잡지사·기업
  - ④ 해외 유망 출판인 양성기관과 교육교류(영국 Book House Training Center·독일 Schulen des Deutschen Buchhandels·일본·IT수업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교부과로 문의

대한출판문화진흥회 부설 출판대학 한국출판디자인학원 110-190 서울·종로구 종로동 105-2 ☎ 735-2701~4 FAX 738-5414

### 제4회 전국대학(원)생 논문상모집

한미은행이 정립 8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원상논문 공모합니다. 1983년 3월 16일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설립된 한미은행은 참신하고 내실있는 미래의 은행으로 그동안 각종 학술, 예술, 문화, 장학사업에 힘입은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원상논문공모는 학생들의 학술연구의 새로운 이론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진리탐구의 의무에 불응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논제: 가. 나. 다. 중 택일
  - 가. 민간주도 경제의 한국경제 미래상
  - 나. 개방화시대의 금융산업 발전방향
  - 다. 우무어라온드와 대외무역정책
2. 응모요령
  - 가. 응모자격: 전국 대학(원) 대학원 재학생
  - 나. 원고매수: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10매내외의 요약문 1부 첨부요)
  - 다. 응모마감: 1991. 7. 20 (당일차 소인문도 유료)
  - 라. 당선자 발표: 개별통보 및 산문광고
  - 마. 심사: 권위있는 중립적 심사
  - 바. 제출처: 우편번호 110-16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한미은행) (주) 한미은행 종합기획부 조사담당자 및 사무실로
  - 사. 유의사항: 1) 논문제출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제학증명서 1통을 첨부할 것(학생증사본도 가능)
  - 2) 응모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학교명이 인쇄된 원고지는 사용하지 않 것
  -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합기획부 조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전화: (02)731-8062, 8063)
3. 상금 및 시상
  - 가. 상금: 1) 최우수작(1명) - 300만원과 상패
  - 2) 우수작(2명) - 각 100만원과 상패
  - 3) 가작(3명) - 각 50만원과 상패
  - 4) 입선(5명) - 각 20만원과 상패
  - 나. 시상: 당선자에 대한 시상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함
4. 특 전
  - 최우수작 및 우수작에 당선된 학생이 졸업후 특별행사를 위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인행에 특전을 부여함

한미은행 창립 8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전국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원상논문 공모합니다. 한미은행 창립 8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전국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원상논문 공모합니다. 대표전화: (02) 731-8114



기획 연재 올바른 대학생활을 위한 제언

# 철학은 올곧은 삶 향한 '나침반'

### 글 쓰는 차례

1. 삶의 나침반, 철학
2. 사회현실을 바로알자
3.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4. 또하나의 조국, 북한에 대하여

○...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에게 대학은 경이로  
○... 우면서도 어려운 곳이다. 사회를 향한 첫 걸  
○... 음이자 왜곡된 고교입시교육을 벗어난 첫 발  
○... 자욱이기 때문이다. 신입생들은 대학에 들어  
○... 와서 지베아데를 읽기 양산한 허구적인 외  
○... 래문화, 허위의식을 깨뜨리고 시대가 요구하  
○... 는 양심으로 민중이 바라는 민의의 대변자로  
○... 서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  
○... 배워왔던 이그리진 관제교육의 껍질을 벗고  
○...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본시리  
○... 존는 그런 의미에서 기획된 것이다. 부디 많  
○... 은 토론과 고민속에서 시대의 양심, 구국의  
○... 햇볕을 치켜드는 신입생들을 많이 보고 싶  
○... 다. <편집자> ○...

'도대체 이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인생은 무엇이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거대한 세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인간은 무엇인가' 등등. 신입생들이 대학에 첫발을 내딛으며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들이다. 항해사들은 항로를 정확히 찾기 위해 나침반을 사용한다. 신입생들도 이와 같은 물음에 올바르게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선 항해사처럼 삶의 나침반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나침반을 철학 또는 세계관이라 부른다. 철

학 문제들중에서 인간의 운명개척에 가장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철학의 근본문제라 한다. 철학의 근본문제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철학은 삶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선 철학들중에서 '물질'(사물의 의식밖의 실체)과 '의식'과의 관계를 근본문제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 살펴보자. 이문제는 물질과 의식을 어느것이 더 선차적인가 하는 선후관계의 문제였다. 즉 세상의 근원이 물질이 생기고

요시하기때문에 인간을 경시하고 판단론은 정신, 의식을 존중하기에 참다운 철학이라고. 그러나 유물론은 물질을 의식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인간을 경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존중하고 물질세계를 개조해 인간 생활에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도와준다. 수천년동안 심각한 논쟁거리가 됐던 이문제는 결국 세계는 물질로 되어있고 의식은 물질에서 파생된 것이며 세계는 물질운동에 의해 변화발전한다고 뚜렷이 밝혀졌으므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문제가 이로써 모두 풀린것은 아니다. 비록 이세상의 근원이 물질이고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 판명되었어도 사람이 다른 물질적 존재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과 세계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물음이 풀리지 않으면 당연히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운명개척을 위해 풀기위한 철학,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로서 사람과 세계의 관계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 세계의 근원은 무엇인가

종교나 형이상학적 관점론에서는 세계가 절대적인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 졌다고 하여 세계의 근원은 '신' 또는 '절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유물론에서는 세계의 보편적 기초는 오직 물질이고 세상만물은 물질로 이루어진 자연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질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옳다는 것은 자연과학이 이룩한 성과에 힘입어 판명되었다.

물질이 정신, 의식, 감각의 산물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현대과학에 의해 정신, 의식 또한 고도로 발달된 물질 즉 뇌(뇌수)의 기능성이 드러났기에 거짓임이 밝혀졌다. 더구나 인간이 지구에 나타난것이 1백만~2백만년전이지만 지구는 70억년전에 생겼다는 것은 무엇이 세계의 근원인가를 말해준다.

이렇게 세계의 근원을 이루는 물질은 어떻게 존재하며 어떤운동을 하는가.

한마디로 모든 물질은 연관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 발전한다고 할수있다.

이런 연관과 변화, 발전은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에 따라 진행된다.

###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신에 의해 만들어 졌거나 정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닌, 지구가 출현하고 그위에 생명체가 나타난 이래 그것이 진화발전을 거듭

하여 발전한 것이다. 즉 인간은 물질, 객관법칙에 따라 변화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최고로 특출한 물질이다. 사람은 오랜 노동의 진화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뇌구조, 직립보행능력, 정교한 손, 언어 등 특수한 육체기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세계발전의 최고 산물이다.

또한 사람은 다른 생명물질과 다르게 사회를 이루고 사는 사회적 존재이다.

사람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회를 이룸으로써 엄청난 물질문명을 이루었음뿐 아니라 예술, 음악등의 정신문명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얻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다.

자주성이란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는 인간의 속성이다.

사람은 일반 동물과 달리 추위, 더위등 자연의 구속, 속박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주적으로 살아왔다.

사회에서도 사회의 예측, 불평등

은 것은 이로온 것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창조자이다.

그리고 사람은 의식성을 갖는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는 동물과는 달리 의식을 가지고 세상만물을 파악하고 탐구한다.

사람은 사물에 대해 탐구하고 인식할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의식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목적의식적인 삶을 살아나갈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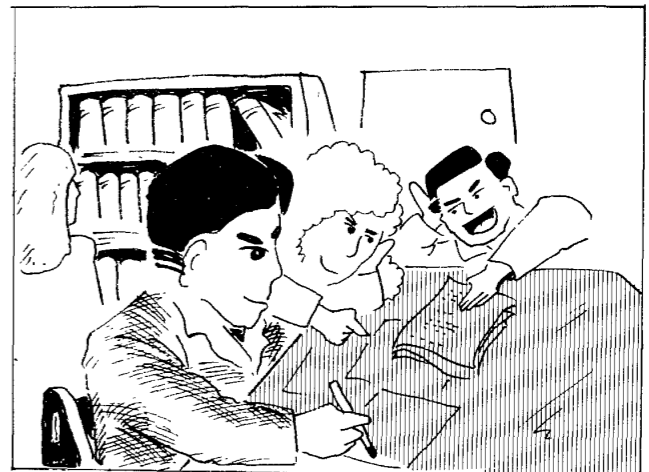
### 사람과 세계

지금까지 세계의 근원과 존재형식,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제 사람과 세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기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수 있을지 알아보자.

사람은 자연에 얽매어 살지 않는다. 자연의 온갖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지배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감각기관과 육체적 능력을 가진 동물도 있다. 개는 냄새를 잘맡고 새는 날아다니고 나뭇잎은 사람보다 빠르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중 자연의 순응하지 않고 그것을 지배할수 있는 동물은 하나도 없으며 또한 동물은 세기를 창조할수 없다.

즉, 씨끼스의 똥을이는 담배를 피고 술을 먹을줄은 알지만 담배를 만들고 술을 빚는 능력은 없는 것

사회에서도 사회의 예측, 불평등



### 사람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사회를 이루는 사회적존재

맞게 사회를 개조한다. 일제때는 빼앗긴 주권을 찾기위해 독립투사들이 싸웠고, 지금은 불합리한 독재체제와 경제체제를 민주적인 체제로 갈아치우기 위한 민주화과정에 대다수 민중이 주인으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사회의 온갖 재화를 만들어 내는 창조자이다.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대중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계, 원료, 물건을 생산한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운명의 주인이다.

모든것의 주인인 사람은 자기운명의 유일한 주인이다. 사람은 자기운명을 책임지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개척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어디서도 자기운명을 의탁할수없고, 의탁할 데도 없는 자주적 존재인 것이다.

### 어떤태도로 세상을 볼 것인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주인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인대접을 받으려면 주인답게 행동해야한다. 그러려면 우선 모든것을 사람중심으로 사고하고,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것을 주인된 자세로 풀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할 능력이 있다. 그런데도 만약 자기가 할일을 남에게 맡긴다거나 남의 덕만을 기대한다면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지금의 세상에는 온갖 잘못된 삶

의 자세가 판을 치고 있다. 황금만능주의, 출세지상주의, 쾌락주의등 온갖 독소적인 삶의 자세가 깔려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니는 대학에도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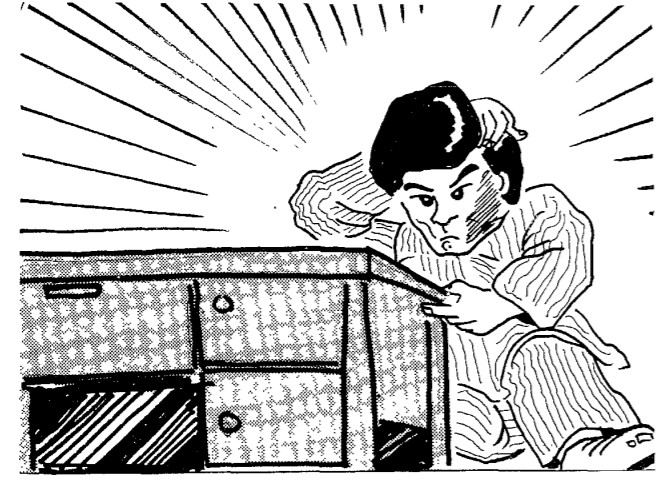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는 그런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은 자주적인 삶의 자세, 창조적 생활자세, 집단적 생활자세이다.

자주적 삶의 자세란 자연과 사회의 온갖 힘포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지배하는 주인된 삶의 자세이다. 사회속에서 살기위해서, 또한 그 사회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인됨을 가라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하고 안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창조적 생활자세는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탐구하고 찾아나가는 자세이다. 마땅히 주인이라면 해야할일을 할때 창조적 주인이 될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집단적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회란 결국 집단이며 집단속에서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용납되지 않는다. 대학안에서도 현재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좁은 교정을 누비는 자가용족들, 학업을 위해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만 공부하겠다는 자세들이 그것이다.

대학은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공부하는 생활공동체이다. 공동체속에서 집단적인 삶의 방식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설수 있는 기초를 닦는 일인 것이다. <사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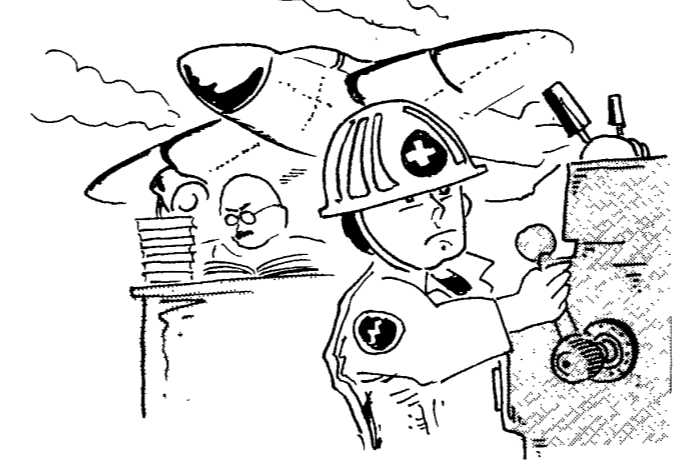
### 대학은 창조적 생활자세로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이다.

학은 유능한 학자들만이 아는 하늘의 별이 아닌 모두가 가져야 할 나침반이다. 철학은 자신의 운명(그 사람이 놓인 사회적 관계까지)을 개척하여 사람답게 해주는 등불인 것이다.

### 철학의 근본문제

철학이 인간운명의 개척에 기여하려면 수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세계란 무엇인가, 자연이란, 사회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자연과 사람의 상호관계는, 등등. 그러나 이들 모든문제에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관의 학문인 철학이 풀어

의식이 생긴 것인가 아니면 의식이 생기고 물질이 파생되었는가하는 문제이다. 물질이 선차적이고 의식이 나중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을 '유물론', 의식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을 '관념론'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책상을 보면서 유물론자는 "책상이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난 책상이 저기 있다는 의식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관념론자는 "여기 책상이 존재한다. 이책상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책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중 고등학교시절 잘못 배웠다. 유물론은 정신이나 의식보다 물질을 중



### 세상의 근원은 물질이고 연관되어 변화 발전한다.

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사회적 삶을 개척해 나간다. 사람은 남에게 예속되고 지배당하고 욕되게 사는 것을 단호히 반대·거부하는 자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의 근본성질이다. 사람은 외부세계를 개조·변형해 불리한 것은 유리한 것으로, 해로

●광기거리가 1km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 제3의 필기구라 불러도 좋다.

전통의 모나미가 새롭게 탄생시킨 또 하나의 걸작, 슈퍼 프러스펜

모양은 볼펜이지만 필기감은 프러스펜입니다.

Tip 구조가 전혀 다른 슈퍼프러스펜은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필기감에 이르기까지 만족할만한 새로운 필기구입니다. 볼펜같은 프러스펜! 모나미 슈퍼프러스펜 직접 느껴보세요.

細字用 특수 프라-팁을 사용한

## 슈퍼프러스펜

(정·적·흑 - 한자루 300원)

모나미 슈퍼프러스펜은 종래의 프러스펜을 휴대하기에 알맞게 만든 필기구로서 모양은 볼펜이지만 혹은 프러스펜이기 때문에 글씨를 기쁘고 부드럽게 쓸수 있습니다.

**SUPERPLUS**  
모나미만의 탁독 생산 필기구입니다.

문구종합메이커  
**주식모나미**

교양문화

수서비리 은폐조작 청년학생 분노한다

# 선후배 어우러져 공동체의 장 열어

## 91학년도 신입생

### 예비대학을 마치고

앞으로 동국을 이끌어 나갈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치렀다.

본관에서 서울·경주 각 캠퍼스별로 경기지역·경주일대에서 2박3일간 진행된 91학년도 신입생 예비대학에서 선후배가 함께 올바른 대학생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찾아 전체적인 평가와 전망을 내보냈다. (편집자)



◇경주캠퍼스 동아리 '고전극 연구회'가 신입생 예비대학에서 노동극 '단결투쟁'을 공연하고 있다.

"남편이 넘치는 곳 그리고 학문연구의 장으로만 막연히 생각했던 대학에 대해서 젊은 2박3일의 일정이었지만 선배님, 파친구들과 함께 여러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놀이에도 참가하면서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입생들에게 올바른 대학생활과 다양한 대학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열린 신입생예비대학이 서울·경주 각 캠퍼스별로 입학식을 며칠 앞두고 경기도 양평과 경주 도부락일대에서 2박3일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친한 친구사이가 된듯 헤어짐을 아쉬워 해 공동체임을 확인했다. 경기도 양평프라자리조트에서 진행된 서울캠퍼스 예비대학의 첫째날은 입소식과 과별 발배정 후 과별시간을 통해 자기소개, 과소개, 오락등으로 서막을 열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인원으로 2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틀짜리 백상용원단의 신명나는 노래와 율동, 응원으로 진행됐다.

총학 예비대학 준비위원과 과파를 중심으로 단체·자치기구가 참가한 전체행사로서 3번째를 맞는 경주의 경우 전체적으로 과파별 시간이 많이 주어지며 전체일정과 함께 과별특성이 어울리게 치른 행사였다. 전체행사로서 예비대학을 처음 치루는 서울은 2천여명의 학생이 참가해 하나되는 자리로서는 손색이 없었으나 총학의 운영상 미비로 인한 행사취소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서울·경주 모두 처음의 서머시였지만 선·후배, 친구사이가 2박3일의 짧은 일정을 치른 후에 어느새

스스로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 선후배간의 화합을 다지기도 했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전체 일정 없이 각 과별로 선후배간의 대화 및 놀이의 시간을 가졌으며 헤어짐을 아쉬워 하는 모습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한편, 경주 도부락일대 캠프장에서 열린 경주 예비대학의 첫째날에는 입소식과 고전극연

되는 마당'이 열려 악과 함께 강강수월래를 부르며 옛 조상들의 공동체문화에 대한 체험을 했다. 마지막 날에는 좌경용공이라는 메도하에 신입생이 전혀 접할 수 없었던 진정한 노동극 '투쟁이 곧 삶이다'라는 노동자의 정서에 관한 여정을 그린 영화 '과업전야'를 상영한 후 학과별로 2박3일을 정리·반성

한해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의외에 비해 서울·경주 각 예비대학 준비위원의 준비가 미흡한 면도 없지 않다. 경주의 예비대학은 작년의 신입생 참가율에 비하면 매우 낮은 5백여명만이 참가해 학생들만의 예비대학이 아닌 학교·교수와 함께 하는 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서울은 총학 예비대학 준비위원과 학교당국이 결집해 총학의 전체일정이 진행되는 20일(첫째날) 오전에 동국관등에서 단체별 수감신청안, 교수소개, 학교생활 안내가 있어 신입생들에게 다각도로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가 되었다.

각 행사진행을 살펴보면 경주의 경우 전체행사와 과 파별행사의 시간배정이 적절히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흥겹게 지내는 시간과 각 과가 준비한 과파별, 초창강의 등 다각적인 진행이 이뤄졌다. 서울은 2천여명의 참가라는 호응도에 비해 총학생활에 이를 효과적으로 부족하지 못해 행사진행을 2팀에 나눠 진행했으나 이렇게 행사를 계획하면 이공시각들의 소비로 신입생들이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많았다.

서울의 경우 많은 수를 한한 행사로 치르거나 총학 준비위원과 과 파별로 결집해 예비대학을 치르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짧았던 예비대학을 마치고 입학식을 갖 치른 초창한 눈망울의 신입생들이 '대학의 낭만'이라는 미명아래 방황하며 지척기 전에 예비대학과 연계된 선배들의 울음은 지도와 사람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문화부)

## 단신

### 민중가요 작곡가 박중화씨 구속

청년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즐겨 부르는 '지리산', '여성전사', '바쳐야 한다' 등 민중가요 작곡가 박중화씨 구속되어 문예활동가 박중화씨가 지난해 11월 19일 전남도청 대공과 형사들에게 자택에서 불법 연행되어 국가보안법과 음반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 복역중이다.

작곡가 박중화씨는 88년 조국통일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던 여름 '전대협 산하 통일열사대원'으로 투쟁중 구속되어 옥중에서 노래를 창작하여 옥중 창작집 '본노'라는 노래 테이프를 제작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어서 창작집 '고난의 행군'과 3집 '바쳐야 한다' 등을 제작하였는데 '고난의 행군'이 북한 노래를 모방하였다 하여 지적 표현을 제재, 반포와 음반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다.

'고난의 행군'은 1930년대 일제의 만행에 저항하여 항일 투쟁투쟁을 벌이는 민중의 정서를 반영한 작품인데 수록된 노래중 북한어 노래와 비슷하다하여 '이적표현'으로 탄압을 가한 것이다.

남북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오가고 남북의 음악이 상호교환 공인되는 마당에 이러한 것은 명백한 탄압인 것이다.

실사 작품 구성상 당시의 정서를 반영하기 위해 북한의 노래가 원곡 그대로 한두곡 실렸다고 해도 하등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서울...호응도 높은 첫시행, 미숙한 운영 보여

### 총학 전체·과별행사 조화이뤄 진행돼... 경주

구회 탈퇴의 노동극 '단결투쟁'이 열려 극과 함께 어우러진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었으며 행사가 가장 다채로웠던 둘째날의 오전 행사는 '올바른 대학생활'에 대한 초창강연 후 우리의 민중들이면서도 생경했던 날씨가, 율동, 제기차기, 단체줄넘기등의 놀이를 각 과별로 체육행사시간을 벌여 지냈고 저녁시간에는 학교생활과 전교조, 민중을 주제로 한 노래대결의 공연, 개인·단체별 신입생 자기자랑에 이어 마지막으로 캠프 파이어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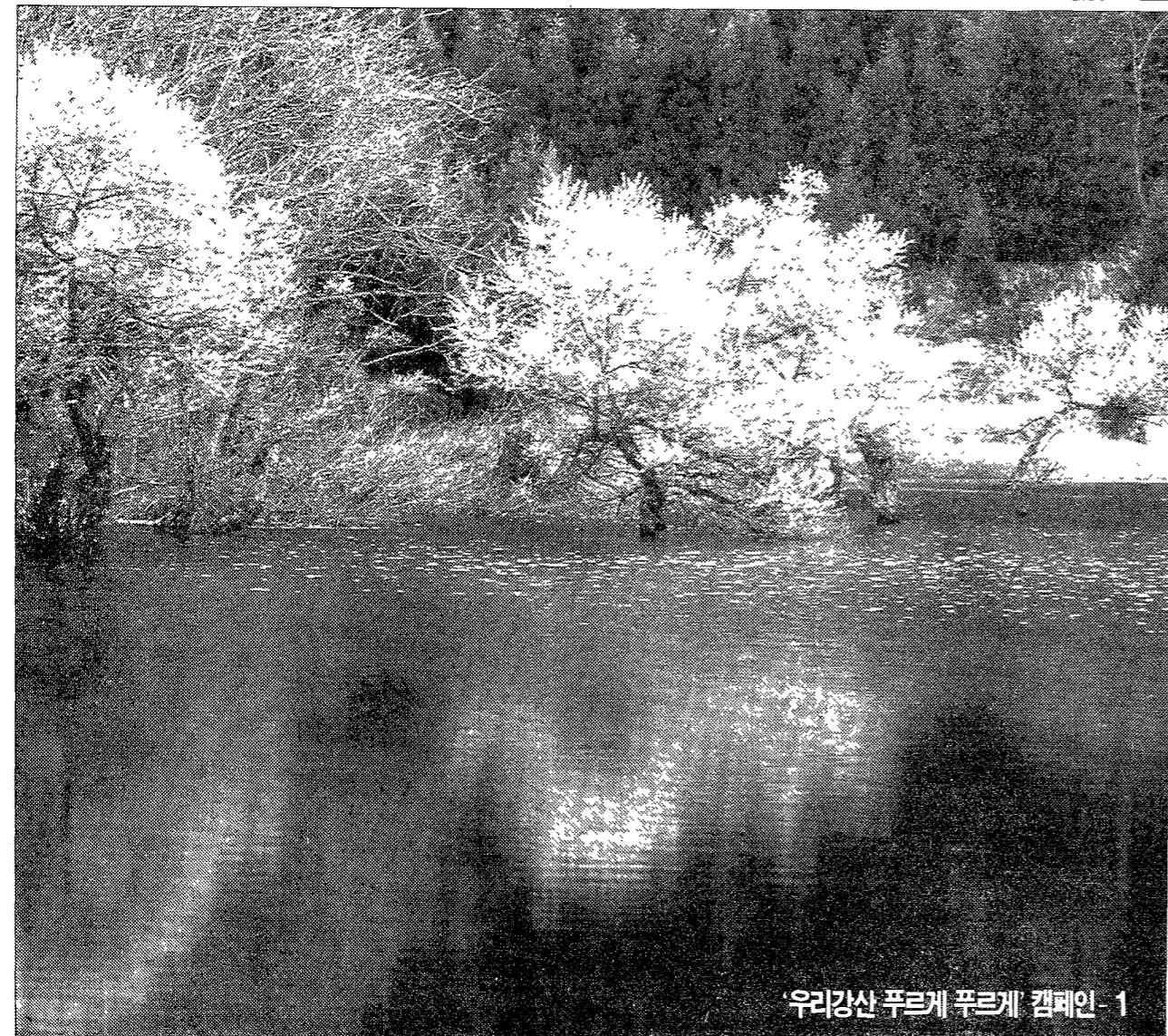
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모든 일정을 마쳤다. 다채롭게 진행된 전체행사 가운데 신입생의 호응이 높았던 행사는 풍물패의 풍물놀이와 신입생이 직접 참가한 민중체육놀이, 신입생 자기자랑 등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서울·경주 각 예비대학은 그간의 입시위주의 교육의 병폐로 지적되는 개인주의를 선후배가 함께 자리를 가지며 토론하고 긴장한 놀이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라는 공동체적식을 느끼게

게 되면서부터 음악지식에 대한 문외한인 작곡가 박중화는 혁명의 노래, 민중의 노래 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그는 현재 '지리산', '여성전사', '바쳐야 한다' 등 독특한 자신의 음악세계를 구축한 광주지역 노래운동가로 유명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음악지식이 없는 자신이 음악 창작자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번뇌와 시행착오와 오류를 자아비판하는 실정으로서 노래운동과 하고자 하는 노래에 일관성, 노래를 단순히 좋아하는 초보자들이 그리고 현재 노래운동을 하고 있는 문예인들에게 조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창작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런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상식적인 질문으로부터 이야기식으로 쉽게 풀이하고 있다.

## '나의 사랑 나의 노래'

80년대 초반 몇 모르고 선배들에게 배웠던, 탐골리며 집회에서 북정껏 불렀던 노래들 중에는 많은 노래들이 일본음악의 표절곡이나 미국음악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



# 水 물은 그리움입니다.

물은 자연의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물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겨울이 되면 날개옷으로 바뀌고 하늘에서 평평 내려옵니다. 봄이 오면 얼음옷을 벗어 버리고 봄복으로 화답합니다. 장대비가 되어, 찬이슬로 소리없이 내려앉은 천재로 말하기도 합니다. 소리가 있는 물, 빗방울이 있는 물, 움직임을 있는 물... 그것은 자연이 선사한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자연은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은 나무를 통해서 맑고 깨끗해집니다. 강에는 탁류가 흐르고 물고기가 물을 뛰쳐나와 갈 곳 없이 사라져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 땅을 잃어버린다는 징조가 아닐까요? 심각한 수질오염, 나무가 많아야 물도 맑고 깨끗해 집니다. 유한김벌리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나가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그것은 옛부터 내려오는 한 그릇의 정한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유한김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이렇게 펼쳐 왔습니다.

- 1984년부터 지금까지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으며, 산림청원 조성기금으로 10억여원을 산림조합중앙회에 기탁하여 각종 산림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림, 육림 및 산촌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약 13km의 산길을 개설하여 왔습니다.
- 지리산은 청소년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나무관찰대회, 여름나무캠프, 푸른꿈나무 글짓기대회를 펼쳐 왔습니다.
- 4월 5일 한기호 한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매년 개최, 나무사랑을 널리 일깨워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심볼마크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맑은 물을 상징하는 물결모양과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함께 표현하였습니다. 심볼마크 공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우수상: 전립명  
우수상: 김진우, 최문선, 유지현/공동 출품  
가작: 강현철, 최희진/공동 출품, 김지숙, 강현우  
시상일정은 개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깨끗한 생활

**유한김벌리**

수서비리 은폐조작 청년학생 분노한다

# 교수영입 2개과 교수·학생 공동합의

## 일부교수 이의제기로 채용 연기되기도

진보적 교수영입을 통해 인적구조혁신을 실현하고 교과과정개편, 교육의 질적도약대비를 대외로 지난해 6월초부터 시작된 신규교수 채용이 올해에도 서울 동생과를 비롯한 4개과, 경주 일문과 등 5개과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4일 학교측과 중앙교과위원회의 면담식상에서 △교수채용의 모든 과정 공개원칙 △학과에 권한위임과 합의준중 △후보자 1인 추천원칙 △교수·학생 공동합의의 작성 등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여 각과로 합의내용을 발송, 지난달 18일 대학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교수채용이 인맥, 파벌, 금품수수 등에 의해 전개됐다는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민주적 교수영입으로 학문사상의 자유경쟁과 발전적인 학문발구의 틀 마련에 최우선 과제를 삼았던 이번 본교의 교수채용은 전국 대학에서도 교수·학생이 함께 참여한 최초의 형태였다. 이는 여러가지 의의와 과정상 드러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교수채용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불완전하나 3개과에서 공개강당이 열렸고 역교과, 인문학 등 교수·학생이 공동합의에 이르는 민주적과정의 좋은 선례를 남기기도 했

다. 그러나 일부교수들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채용이 연기되거나 교수단독동의서가 제출되는 등 교수공개채용과정에서 과의 제반문제를 풀기엔 인맥에 의한 교수들의 수직적 상하관계등 구조적 모순이 너무 깊게 뿌리내려져 있다는게 교수채용을 지켜본 학생들의 지배적 견해이다.

이번 교수채용에서 지난 1월 4일 합의된 내용중 몇가지 불충분 부분이 있다면 채용분야에 대한 결정과정에 관한 부분이 빠졌다고 그 하나이다. 실제로 과에서 필요한 전공분야와 무관한 교수를 채용하는 것으로 농성과 채교과가 이러한 경우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공개강당에서 학부, 대학원생, 교수 모든 집수배분이 같다는 것과 전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학부생들의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부분 또한 이후 민주적과정의 의의와 과정상 드러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경주캠퍼스의 경우 지난 1월자로 일어일문, 사회학, 생화학, 산업안전공학, 정보관리등 5개학과가 91년 1학기 신규교수발령이 확정돼 수업에 임할 예정이다.

작년 10월 일어일문, 철학, 사회학, 생화학, 산업공, 관경, 회계, 정보관리등학과등 8개학과 교수인용공고가 나간 후 지난 1월22일경에 각과의 교수와 학과장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강당이 이뤄졌다. 그러나, 공개강당의 실시절차가 없어 의례적으로 학과장과 과대표들이 참가했으나 이에 대한 사전공고나 사후공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공개강당의 진행에서도 단대학생회(회장=이재민·조경4)에서는 "생화학, 산업안전공학과 교수들의 공개강당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고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

무처에서는 "각과로 공개강당에 대한 통보를 일괄 진행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규교수가 발령된 현재까지 교과위 체계가 부재해 그에 대한 학생회 입장이 없고 중앙교과위원장은 선임된 상태이다.

(취재부)



이제 세상을 향해 아버지에게 가운을 입혀드리는 아들이 아버지의 눈에서 김영란 기자

### 경주 신입생 예비대학 열려 '과업전야' 상영등 낮설어

경주캠퍼스 91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예비대학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24개학과 신입생·재학생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 도도락빌드 방갈로촌 일원에서 열렸다.

중준비위원회(위원장=정동일·경영4)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과소개, 전공도전 등 등의 학과별 시간을 위주로 진행됐으며 전체행사도 결해 열렸다.

전체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1일에는 △입소식=총학 부장단 및 자치기구장등 학생회 소

결투쟁'이라는 제목의 노동극으로 노조활동및 노동자의 생활을 표현해 신입생들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했다.

2일에는 △김삼기(경북대)교수 초청강연=올바른 대학생활을 위하여'란 주제로 신입생들의 생활의 올바른 예를 제시했고 △민속체육대회=웃놀이, 널뛰기등 4가지 민속경기로 우리의 전통놀이를 즐겼으며 △'알생' 노래강습 및 공연=대학생활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민속가요와 전교조 노래들을 통해 전교조 2세대임을 자각시켰고 △신입생 자기소개=과과당

1팀을 기준으로 신입생의 숨은 장기를 마음껏 펼쳤으며 △하나되는 마당=불꽃씨 '하나되는 마당' 전화를 시작으로 하나의 원으로 강강수월래를 추며 하나되는 자리를 마련했다.

3일에는 스테레오이션 및 영화상영=과업전야'상영으로 그동안 보아온 영화와 달랐다. 평과 무언가 생각할 것을 준다.는 평이고 △트릭스식=아쉬움 2박3일의 행사를 마감하고 입학식 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다.

상경대 정·부회장이 이정렬·윤창석 조 경주캠퍼스 제3대상경대학생회 선거에서 기조2인 조용훈(경영4), 김화중(회계4) 조가 부정선거와 관련, 제소절차를 밟힘에 따라 기조1인 이정렬(경계4), 윤창석(회계4) 조가 당선 확정됐다.

지난달 5일 예비대학준비 학생회장단 모임을 통해 조·김 조는 "올바른 학생회사업진행과 학생회 위상정립을 위해 철저히 한다"고 밝히고 "홍실상영으로 들었다"고 말해 4개월간의 정통시비가 마무리 됐다.

장서 1만3천여권 증가 90년 1인당 대출량 13권

경주캠퍼스 도서관(관장=김영호·철학)은 90학년도 장서증가 통계와 도서대출량을 지난 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기증도서와 구입도서를 포함 총 1만3천4백88권이 증가했으며 분류별로 동양사 7천8백82권, 서양사 2천3백95권, 8백65권 학위논문 등의 등록도서 2천3백46권이이며 현재 미등록 정기간행물의 총

계가 5만여권으로 집계됐다. 또한, 90학년도 총대출량은 89년도의 10만6백32권보다 3만6천7백80권이 감소한 6만5천52권으로 집계됐는데 분류별로 살펴보면 문학류가 가장 많은 2만9백51권이었고 사회과학 1만3천3백71권, 역사 6천347권, 철학 4천9백77권, 총류 4천7백7백19권 등의 순이다.

교수와 교직원도 1천9백85권을 대출한 것으로 밝혀졌고 90년도 학생1인당 평균대출을 책수는 13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 이사장면담 요구 졸업식장 입장 저지

경주캠퍼스 90학년도 졸업식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대내외의 시선을 끌고 있는 학교를 방문한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무관에서 있었다.

제8대 총학생회측의 이사장 면담 요구로 1시간간절로 늦게 치러진 이날 졸업식은 삼거리, 배, 학사부고, 학위수여순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총학생회는 오전 10시 30분경 학생처장을 방문해 등록금 채정과 경주캠퍼스 현안 문제등을 논의키 위해 이사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학교측이

이를 거부하자 오전 11시5분 교내사거리에서 이사장을 비롯 내외의 시선을 끌고 있는 학교를 방문한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무관에서 있었다.

제8대 총학생회측의 이사장 면담 요구로 1시간간절로 늦게 치러진 이날 졸업식은 삼거리, 배, 학사부고, 학위수여순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총학생회는 오전 10시 30분경 학생처장을 방문해 등록금 채정과 경주캠퍼스 현안 문제등을 논의키 위해 이사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학교측이

총학인선 안료

경주캠퍼스 제8대 총학생회장(회장=오규석·한회2) 및 제7대 여학생회장 학생자치기구가 지난달말 각 기구별 집행부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 사업에 들어갔다.

총학 집행부를 살펴보면, △총무부장=정호섭(국사4) △사회부장=최현철(미술3) △학술부장=박정주(철학4) △문화부장=이강영(일문4) △연대사업부장=김민정(중문4) △체육부장=박준석(조경4) △스포츠부장=이창근(불교4)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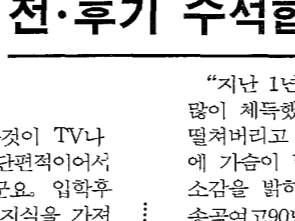
또한 총학산하 기구 및 자치기구를 살펴보면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의 위원장=이원찬(법학4) △중앙교과위 위원장=김영우(수교4) △취업진로대책



### 인터뷰 전·후기 수석합격자를 만나

질문에 "저는 듣고 보는데 TV나 신문지상의 보도뿐이라 단편적이어서 아직 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입학후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지식을 가져 보려 합니다."라며 조심스럽게 대답하기도 했다.

이번 전제수석이 후기에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군은 "전기수석이 단대수석 장학금 혜택만 받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해가 안돼요. 전·후기 시험문제가 다르고 분할모집을 하면서를 비교하는것 자체가 평가 잘못됐



### 이근영 양 후기 수석

생활을 보며 저와 별개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았어요"라며 심한 빈부격차는 문제가 크지 않느냐며 기자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학생운동에 대해서 이양은 "TV를 통해 가끔 보지만 별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않습니다. 다만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별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라며 조심스럽게 대답한

### 의료봉사활동등 적극 참가할 터

작년엔 벽이 높아 실패했었어요. 실패한 오기도 생기더군요"라며 지난날의 실패를 잊으려나듯 씩씩한 웃음을 짓는다.

이어 최군은 "경주에서는 자정전 통학을 많이한다죠. 저는 도심의 택시나 버스를 타는 것보다 자정전 통학하면 오히려 분위기가 있을것 같아요"라며 벌써부터 대학생활을 설계하기에 비빠르다.

현재 학생운동을 어떻게 보느냐는

### 불교종단대학 자긍심 느껴

"지난1년은 저 개인적으로나 부모님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만 전제수석을 차지해 부모님께 작은 선물로 보답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네요"라며 수석영광을 부모님의 은혜로 돌리는 이양의 모습에서 성실하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학원에서 '프라이드'는 장피해서 못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들곤 했는데, 일부 학생들의 귀족같은



### 미래를 쌓아가는 마음.

우리가 무심코 쌓아올린 상자들 - 상자를 쌓을때 계획이 없이 무턱대고 쌓다보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안전해야만 좀더 높이 쌓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마치 하늘 끝까지 올라갈것처럼 다시 차곡 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작업의 연속입니다. 태창기업은 언제나 미래를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진하는 젊은이들을 주시합니다. 그들은 곧 우리의 미래이며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태창기업은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 태창여성의 설립 운영
-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 사원들의 내집마련지원
- 체육활동을 통한 일치감 조성
- 전진기업상의 정립
- 장학문화사업의 실시

태창기업 생산원단의 종류

- 데님, 플랜, 우단, 스트레치, 크랭클, 나뭇잎 등

태昌企業株式會社 TAECHANG ENTERPRISE CO., LTD. 본사: 부산(051)512-2211-8, 서울사무소: (02)733-5935-9

학내보도

수서비리 은폐조작 청년학생 분노한다

# 역사창조의 자유인 되라

## 서울 '총장반대' 피켓팅 시위속 입학식 치러 경주 명진장학에 김상철(의예1)군 차지

'91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일 오전 11시부터 吳繼圖이사장, 閔丙天총장, 학내외내빈, 학부모, 신입생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해광장에서 열렸다.

서울캠퍼스 총2천1백80명이 입학하는 이번 입학식은 입학 허가서인, 신입생서, 총장서, 이사장서, 장학증서수여 순으로 진행됐는데 吳繼圖이사장은 지사를 통해 "교육시설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전통에 자

증심을 갖고 생활하기 바란다" 며 신입생을 격려했다.

이어 장학증서 수여에서 전 체수석학자 이은영(전산1) 양이 명진특별장학증서를 받았으며 총학 피켓팅 시위가 있었고 학교측과의 직접적 마찰은 없었다.

한편 입학식이 끝난 후 총학 생회 주최로 30분간 입학식을 가졌는데 총학생회장 정우식(철학 4)군은 "동국발전을 위해 학원 각주체가 노력해야 하며 재단은 교육환경개선에 투

자해야 한다"며 학부모·신입생 모두 학원의 주체임을 강조했다.

이날 입학식은 행사도중 '총장반대, 등록금일방인상 거부' 등을 내용으로 피켓팅시위가 있어 학교행정기구장 소개등 일부 식순을 생략한 채 30분만에 입학식을 끝냈다.

91학년도 경주캠퍼스 신입생 입학식은 오늘(6일) 오전 11시 문무관에서 열린다.

삼위이례,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전서, 총장서, 이사장

지사, 장학증서수여, 삼위이례 등의 순서로 진행될 이날 입학식에서 장학증서를 수여받는 신입생은 명진장학에 김상철(의예1)군, 혜화학원에 이영희(회계1)양, 동국장학은 조희진(전산1)양, 최원영(관광1)군 등이다.

### 도서관 복지시설 확충 3월내 환풍기 설치 예산부족 아직 문제

중앙도서관 복지시설 확충 및 수리에 관해 지난1월24일 있었던 학생측과 도서관측의 합의사항이 대부분 3월 말중으로 시행된다.

이날 편담은 중앙도서관장 金東俊(국어교육과)교수와 학 복위 및 총학총무부장이 유 계실 난방문제 해결, 휴게실 환풍기 설치등 복지시설8개항을 협의한것으로 도서관측은 필요경결과와 외부학생이용을 이유로 여학생휴게실에 사물함 설치를 제외한 7개항을 이달내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서관 관계자는 위 사항 모두가 별무리 없이 당면히 이루어져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지연된것은 현 서거입비도 못되는 비품구입 비로는 복지사항은 커녕 서적 보충비로도 턱없이 모자라다며 매년 일정 수준에만 머무르는 학교 예산에 기인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동국관 식당폐쇄...업자와 마찰 직영화 위한 구체적 작업 착수

식당직영화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이에 맞선 업자들간의 내림으로 동국관식당이 지난26일에 이어 지난해 일 오후 1시 또다시 폐쇄됐다.

'직영화' 정취를 위한 실천대회'를 지난달 26일 오후 1시 학생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 향관2층에서 갖고 안중숙 후생 복지과장과 동국관 식당업주인 이우희씨의 면담을 가졌으나 이우희씨는 총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씨는 학교측의 통보가 없기 때문에 인수인 계를 거부했다.

이에 총학총회운영위와 학복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이날밤 10시경 동국관식당을 폐쇄하였다.

현재 다향관식당의 서명운동은 학생들의 요구에따라 인수 인계에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식당운영위 원 14명이 오후 1시 학복위사무실에 모여 식당운영의 실무적 일과 근무시간(2~3시간), 운 영비및 정회금지금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실무적인 일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식당폐쇄 과정에서 동국관식당에서 2백여명분의 음식이 남게 되었고, 식당

폐쇄의 사전통보가 없어 동국 관식당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다.

민주문화회 회지 발간 시사해설·소모임 소개

민주문화회(회장=신정림·영문54학번)에서 발간하는 회지 '민주동국' 제16호(2월호)가 발간되었다.

각기 다른일에 종사하는 동 문들의 정서교류 및 시사문제 분석에 이바지해온 '민주동국'은 시사해설, 제언등을 비롯하여 여러 소모임을 소개하고 있다.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난28일 새벽4시, 중 부서소속 전경·백골단 5백여 명이 본교 10여명의 학생을 잡으려(?) 왔다고.

검사도장이 찍힌 '수색영 장'하나만으로 학생회관에 난입, 총학문건과 잡자던 학생 14명을 연행해 1학기 총 령기투쟁을 앞두고 중부서의 부지런함(?)을 선보인 것이 라는 후문이 돌기도 했는데, 이에 본 회전문대자 한마 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듯

름니다"라는 말이 체육관관 처에서 공공연히 돌린다는데, 재학기가 시작되며 새식구 로 신규 교수와 신입생을 맞 기에 바쁜 지금, 아무개과에 서는 교수채용에서 단독 강 행처리(?), 신입생맞이는 A· T로 하는게 관례처럼 되어 왔다 는데, A·T란 근거없는 약자라고 일부 학생

### 학생배주름 올라

○...총학생회, 학복위의 동국관계 방편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무성의와 책임 회피는 이미 식당직영화에 있어서 그 책임이 학교당국 임에 명백하다는 여론이 없 지 않는데...

적영화 작업이 학교측의 무성의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26일 전산원시합때의 경우, 수험생과 시험감독 들에게 동국관식당이용을 권 장하는 느낌마저 들게 해 과

### 총여, 구속자 뒷바라지 영치금 마련-편지보내기

총여학생회(회장=최희희·인 철4)는 시국관련 구속자와 수 배자의 뒷바라지를 위해 '민주 동악어머니회'와 연계해 영치 금마련과 카드보내기등을 하고 있다.

수배자, 구속자의 어머니로 구성된 민주동악어머니회는 자 체회비와 축제때 주점을 운영

### 군기잡힌 학과에는 말 잘듣는(?)신규교수라야

이 수색영장만으로 우리를 잡았다면, 우리는 '구속영장'이 나 발부판이 되치러 가야하 지 않나요?"

군기 잡힌교수(?)

○...A·T를 모르는 당신 은 혹시 사람이 아닐지도 모

### 나서면 빨갱이

○...수서비리로 기록여 지

### 내년 민자당은 기초의회선거 를 들면 조기실시 하겠다고 떠들며 기를 편다는데...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이해와 의식을 호 르기에 폐만전쟁영회는 대홍 행이었고 수면으로 석달전에 비했던 지자 제선거필름 을 다시 주 워서 방영할 작정이라는 등 야단법석 을 떠는것이 그것.

### 연 누구를 위해 학교가 존재 하는지 의문날 지경이라고

자고로 배부른 장관은 군 사의 배주름을 모른다고, 교 수식당이용에만 한정되는 당 국의 행동방식이나 단일한 편의위주 사고가 일찍기만 하다고 한 학우가 하소연.

### 대학원 학생회장 선거 14, 15 양일간 투표

제7대 대학원 정·부학생회장 선거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있을에 따라 제6대 선거관 리위원회(회장=수태원·정치학 박사과정)를 구성, 지난 2일 학생회장선거 공고문을 각과의 조교 및 대외원에게 보냈다.

임후보자는 박사과정중에 있 고 부회장과 1조가 되어 학생 중과 주민등록증 및 30명 이상 의 추천서를 지참하여 신청서 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일정은 △입후보 신청 서 배부및 등록:4일~8일 △입 후보자 공고:11일 △선거유세 기간:12일~13일 △선거일:14일~15일 △당첨자 확정공 고:18일이다.

## 28일새벽, 경찰 학생회관 난입 새학기 맞아 3월투쟁 약화의도

지난28일 새벽3시40분 중부 서소속 전경·백골단 5백여명이 학생회관에 난입, 잠자던 14명 의 학생을 연행했다가 이날 오 전9시 모두 풀어주었다.

이번 학내난입은 검사·중부 서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수 색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이 루어져 김남명(경제3)군등 총4 명이 연행됐으나 28일 오전중 에 풀려났고 경찰 수색으로 빈 병3박스, 신나80ㄷ가 압수된 다.

이에 손영석(농생4)군은 "이 번 난입은 수배자 연행보다 3

월투쟁 준비기로 철야작업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 다면 3월투쟁을 약화시킬려는 음모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본관앞등 교내일원에 전경이 배치된 가운데 30분동 안 진행된 학생회관 전면수색 은 기물파손, 수색후 상태를 학생회관 수위에게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이전의 난입과는 다 른 성격의 의도였다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이다.

한 연구를 완성, 지난해 12월 27일 한국과학기술자 강관왕



###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용역회사비리 진상요구 공개입찰 통한 합리적 관리 절실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용역회사비리 진상요구 공개입찰 통한 합리적 관리 절실해

중독금지서 발부가 늦어짐 에 따른 계약시기 연기, 명 신개발(주)을 제외한 용역대행 사와의 공개입찰을 요구하는 환경미화원과 관계관간의 마찰 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한편 총학 연대사업부는 관 재과와 두번의 면담을 갖고 건 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환경 미화원과 연대투쟁할 것을 약 속하며 긴밀한 접촉을 갖고 있 다.

이번 사건은 '환경미화원의

이제 손영석(농생4)군은 "이 번 난입은 수배자 연행보다 3

한 연구를 완성, 지난해 12월 27일 한국과학기술자 강관왕

### 제5회 동국 문학상에 박제천·이상문 동문 선정

제5회 동국 문학상에 박제천·이상문 동문 선정

시인 박제천(국문66년졸)동 문과 소설가 이상문(국문74년 졸)동문은 동국문학인회(회장 =송원회·영문55년졸)제정 제5 회 동국문학상 수상자로 선정 돼 오는 7일 오후 6시 문예진흥 원 강당에서 상을 받는다.

'나의이름 나의시'시집으로 동국문학상에 선정된 박제천은 66년 현대문학으로 문단에 데뷔, 79년 현대문학상 수상, 87 년 월간문학상 수상등의 수상 경력과 75년 '장사'발간을 시

### 의료용 고분자 재료 개발 교수팀 10년 연구 결실

의료용 고분자 재료 개발 교수팀 10년 연구 결실

본교 成燾吉(화학)교수연구 팀은 10년간의 연구끝에 '의료 용 고분자 재료의 개발'에 관

### 연구개발 우수상을 받았다.

연구개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한국과학기술계 단에서 약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지난 86년부터 3년간 집중연구를 통해 의료용 생체 고분자 재료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연구개발된 의료용 생체 고분자 재료는 사람이 병 이 들거나 자동차 사고로 장기가 파손될 때 생체재료로 인공 장기를 대체해서 생명을 연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의료용 생체적합성 고 분자 재료'는 인공심장이나 인 공신장등과 같은 인공장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고분자 신소재로서 일본, 영국등 3-4개국에서 이번 철 단신소재를 개발한 상태이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 재료 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 측면에 서나 혈액적합성 실험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 재료 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세워, 응용의 가치성 부분도 기대되고 있다.

# 설리는 가슴에 혼을 불어 넣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곳  
세계를 만나는 곳  
대학인을 위한 모든 책이  
교보문고에 있습니다

교보문고

※대한국적보림이 '국민교육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설립한'

Tel 730-7891 / 대 / 외국어 / 교 241, 242 / 대학원서고 / 교 274, 275 / 도서내선 735-6151

**COBUILD 英英辭典**

\* 한국영어영문학회가 추천한 영어사전의 결정판!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전의 혁명이다!

COLLINS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  
총 70,000어 단어에 90,000여개의 예문을 수록한 세계 최초의 예문중심 사전입니다. ■ 하드커버 18,000원 ■ 페이퍼백 12,000원

COLLINS COBUILD ESSENTIAL ENGLISH DICTIONARY  
■ 모든 의미가 완전한 문장과 실제 사용되고 있는 예문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보급판 정가 7,000원

COLLINS COBUILD ENGLISH GRAMMAR  
■ 표현방법에 따라 정확한 구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과 의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보급판 정가 9,000원

COLLINS COBUILD DICTIONARY OF PHRASAL VERBS  
■ 까다로운 구동사들 3,000여개로 압축하고 12,000여 실제 용례를 들어 쉽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보급판 정가 9,500원

COLLINS CONCISE DICTIONARY PLUS  
■ 98,000여 어휘에 15,000여 백과사전 항목을 추가한 백과사전형 영어사전입니다. ■ 보급판 정가 19,000원

\* 교보문고 직접 수입·판매합니다

생활문화

수서비리 은폐제작 청년학생 분노한다

### 등록금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 등록금을 건네주던 댁에게

백승권 (국문과 85학번)

남기취종만료일  
숨이 달도록 달려와  
홍건히 맘 쫓은 이마  
힐끔이는 가슴을 누르면  
경리와 창밖으로  
봄비 세차게 퍼붓는데

차라리 잘 댁이,  
아름도 앳다는 듯 형은 말했지요  
애제 웃음 지으며  
바지 주머니에 등록금 쥘러 주었지요  
하지만 형의 웃음 너머  
직장생활 6년의 파퐁이  
진세에서 월세로 무너지고  
영생은 인삿집 풀어안고  
소리없이 작은 어깨만 달싹켜었어요

사락사락 넘어가는 지폐소리  
콩콩 영수증에 박히는 도장소리  
정류장까지 따라 나와  
나 같이는 되지 말고 꼭 출세하라던  
편팔 먹지 말고 공부 잘 하라던  
형의 간곡한 당부  
천근같이 부거운 등록금 영수증

아 그러나 형,  
계 손에 움켜쥔 건  
어쩔 수 없는 형의 피땀, 영생의 눈물인 줄 압니다  
꼭 출세하라던  
공부 잘 하라던 형이 간곡한 당부가  
두다리엔 부겨워도  
저는 저벅저벅 걸어가렵니다  
피땀과 눈물이 빗발치든 그곳을 향해  
형!



#### 3월의 문화인물 만해 한용운

문화부는 3월의 문화인물로 만해 한용운을 선정하고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만해 한용운 특별기획전-오는 25일까지 덕수궁전시관에서 들·편지·유품 등 2백여점 전시  
▲사비전립-3월하순 예정  
▲만해사상 강연회-오는 9일까지 조계사에서 강연  
▲만해 시낭송회 및 시민축제-오는 30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불교방송 뮤지컬 <님의 침묵> 특집방송-3월중순  
▲생가복원 기공식-오는 10일 충남 홍성군  
▲한용운의 달 특별음악공연-오는 15일 국립극악원 <님의 침묵> (할수 없이) 등 연주



#### 임신서기석

경주캠퍼스 정문에 들어서서 첫번째로 마주치게 되는 건물인 학생회관의 휴게실 앞쪽에 세워져 있는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 확대모형은 위치상 크끼리상과 함께 하부에도 몇번씩 마주치게 되는 곳에 있어 많은 운방인의 눈길을 끌고 있다.  
임신서기석은 최근 본교 연구팀에 의해 발굴된 석장사지 뒤쪽 언덕에서 지난 1935년 발견되었으며 원본은 경주박물관에 소장 중이다. 경주캠퍼스에 세워져 있는 높이가 2m가량의 확대모형은 지난 1984년 12월 학생회관 준공기념과 임신서기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원석의 내용과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것이다.  
"임신년 6월 16일에 두사람이 함께 맹서하여 기록한다...지금으로부터 3년후에 충도를 지키고 과실이 없기를 맹서한다...또

#### 바로잡습니다

지난호(1066호) 7면 퇴임교수기사와 8면 퇴임교수인터뷰 중 金眞泰교수는 金眞泰교수로 바로잡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구내: 2194  
직통: 267-8577 (문화부)

#### '해방맞이 한마당' 판국

현장, 맘관, 예음림, 디딤 주최  
민중권력쟁취를 위한 도독잡이 판국 '해방맞이 한마당'이 극단 현장, 풍물극대 맘관, 삶의노래 예음림, 민족춤 대담주최로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에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공연된다.

#### 정세현 노래공연

정세현(평주출생작곡가) 노래공연  
주최: 통일여의 그날까지  
일시: 3월15일~17일 오후 4시30분, 7시30분(3일간)  
장소: 예술극장 한마당  
'노동자대학 기금마련전' 그림마당 민에서  
그림마당 민에서는 3월중 노동자대학 기금마련전(1일~7일), 박종호 사진전(8일~14일), 양상용, 김상성의 3인의 한국화 리얼리즘 5인전(15일~21일), 사진그림전(22일~28일), 김경주전(29일~4월4일)

#### 극단 청과 안코르

'광·대설날' 공연  
박종호 사진전은 태백의 탄광, 광부 등이 주소재이며, 김경주씨는 80년대 판화운동에 대중운동으로 활성화 시켰다.

#### 전교조 문화국, 노래패 일꾼 모집

전교조 문화국에서는 교유문예운동에 투신할 노래패 일꾼들을 모집한다. 오는 30일까지 1차접수기간이며, 31일에 오디션을 받도록 되어 있다.

#### '민족 만화 학교' 작화공방에서 개최

작화공방에서는 '민족만화학교'를 오는 18일부터 5주간(매주 월·수요일 오후7시) 그림마당 민에서 개최한다.  
내용은 만화운동사, 세계만화사, 일본만화사, 만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영화연출과 만화연출의 비교, 애니메이션의 현황과 창작, 창작과정, 작가와의 대담 등이며, 전체강좌는 2만5천원, 선택강좌는 3천원이다.

#### 극단 청과 안코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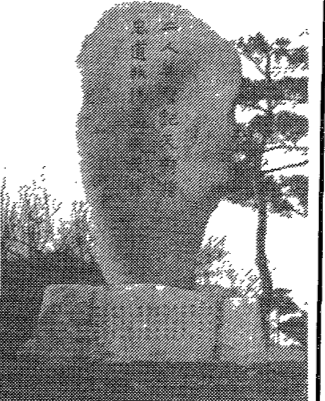
극단 청과 안코르는 청과소극장 개관5주년 기념 및 靑·문화 정착을 위한 일환으로 '광·대설날'을 공연한다.  
일시: 3월 5일~31일(월요일 공연 없음) 오후4시30분, 7시30분  
장소: 청과 소극장  
출연: 황병도, 최경희, 박남희

#### 동승아트센터 개관2주년 행사 '인간 그리고 물체'

동승아트센터는 개관 2주년을 맞아 '인간 그리고 물체' 행사를 마련, 현대 폭두극에서 이해되고 있는 물체의 의미와 인간 활동에 대한 학술적인 토론, 실험무대를 소개하며, 관련분야의 사진전시회를 통해 폭두극의 관심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학술토론회-7일 오후2시~6시  
▲슬라이드쇼-8.9일 오후 4시30분~5시30분  
▲폭두극-8일 오후 7시30분~8시30분  
▲필름과 물체-9일 오후7시30분~8시30분  
장소: 동승아트센터 5층 소극장 (741-3391)

#### 미술학과 창설 20주년 기념 전람회(동학 '71~'91)마련

본교 미술학과 동문들은 미술학과 창설 20주년을 기념하고, 내일의 찬란한 동국미술을 기대하며 82명의 동문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처음으로 전람회(동학 '71~'91)를 마련한다.  
이 전람회에는 한국화에 손연철의 17명, 서양화 오원배의 39명, 조각에 이육의 23명이 참가한다.  
초대일시: 3월6일 오후4시  
전시기간: 3월6일~13일  
장소: 서울시립미술관(구 서울고 자리)



것을 실천하려 했다.  
요컨대 임신서기석은 '지식(知)은 실천(行)을 쫓아야 하고 실천(行)은 지식(知)을 바탕으로야 한다'는 정신이 강했던 당시 신라정초년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신라시대의 실천윤리와 지행합일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행의 분리가 만연된 현대에 큰 귀감이 되며 이같은 실천공행의 정신이 운방인의 정신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  
(문화부)

#### 아랍의 시련

아랍문명의 뛰어난 문화유산이 미국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이란혁명이 폭발한 것도 반미감정의 고조속에 이슬람 반란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서구화된 팔레스트인족의 몰락과 로에이니아에 의해 미국에 가해진 굴욕들은 대중에게 잊혀져 버렸다. 이란혁명의 대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란혁명이 폭발한 것도 반미감정의 고조속에 이슬람 반란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서구화된 팔레스트인족의 몰락과 로에이니아에 의해 미국에 가해진 굴욕들은 대중에게 잊혀져 버렸다.

게 미국사회에 대한 회교도들의 위대한 승리로 인식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감히 모욕하는 어느누구라도 혀를 질러 버리겠다. 우리는 압력을 참지 않을 것이고 굴욕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에 반하여 아랍 민족주의가 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몇몇 아랍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

4-panel cartoon strip by 송태영 (2). Panels discuss topics like 'Do we really have a choice?', '500 won is too much!', 'I have something to say!', and 'I'll give you a lesson!'.

Large advertisement for SAM YANG GROUP. Features a man in a suit, the text 'Regions of Culture',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precision chemistry, food processing, and printing. Includes the SAM YANG logo and contact information.